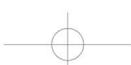






공동주최 강정마을평화북카페[제주], 경기도미술관[경기안산], 골목도서관[인천], 과정초등학교[부산], 군포시중앙도서관[경기군포], 귀덕초등학교 '오순도순글숲' 도서관[제주], 글마루작은도서관[부산], 꿈나무책놀이방[서울], 남문초등학교[부산],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인천], 달리도서관[제주], 대구동성초등학교 늘벗도서관[대구], 대정골지역아동센터[제주], 동녘도서관[제주], 마포구립서강도서관[서울], 민주공원[부산], 사상도서관[부산], 성림초등학교도서관[강원춘천], 성지달팽이작은도서관[부산], 신호초[부산], 안골포초등학교반딧불도서관[경남창원],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책놀이터[경기고양], 영종도서관[인천], 오남중학교도서관[서울], 오안초등학교도서관[강원홍천],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 우리동네도서관[부산], 재미있는느티나무도서관[경기고양], 정선꿈꾸는도서관[강원정선], 종촌마을어린이도서관짜샵[대전], 진달래어린이도서관[인천], 책마루도서관[부산], 책방골목문화관[부산], 책이랑도서관[경기성남],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인천], 콩세알도서관[인천], 포항시립포은도서관[경북포항], 풀잎작은도서관[부산], 품앗이어린이도서관[인천], 화명도서관[부산], 흥덕문화의집[충북청주] 평화박물관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 전시회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어봐!

언제부턴가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숨바꼭질하고, 흙으로 두꺼비 집을 만들고, 고무줄놀이하며 까르르- 웃음 짓던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놀이터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그 많던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놀이터에서 지렁이의 울음소리도 들어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화의 감수성을 키워야 할 아이들은 학원가를 전전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얼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친구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마음껏 잘 수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왕따와 같은 학교폭력이 나쁘다고 말한들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까요. 지렁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주변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한들 공허한 울림만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기아로 굶주리고,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지렁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되찾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 친구가 즐거울 때 나도 즐겁고, 내 가족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고, 지구 반대편 어디선가 사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평화로울 때 나도 평화로와 지는, 그런 감수성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전시회〉의 평화책들이 평화의 감수성을 키워주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전시회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어봐”를 위해 고생해 주신 평화책선정위원회분들, 참여도서관들, 자원활동가분들, 책과 그림을 기증해주신 출판사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2년 5월
평화박물관

평화박물관 ·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 전시회

지령이 울음소리를 들어봐!

▶ 행사 개요

[이름 _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 전시회 “지령이 울음소리를 들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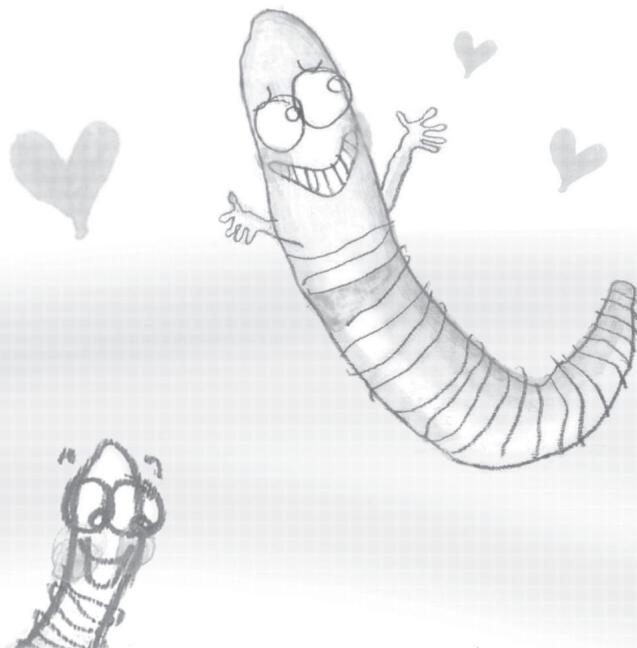
[일시 _ 2012년 5월 1일~12월 31일]

[장소 _ 전국 41개 어린이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도서실, 공공도서관, 문화공간 등

(이 외에 30여 개 도서관이 8월부터 추가로 평화도서 순회전시를 할 예정)

▶ 공동 주최 (참여 도서관 및 단체)

강정마을평화북카페[제주], 경기도미술관[경기안산], 골목도서관[인천], 괴정초등학교[부산], 군포시중앙도서관[경기군포], 귀덕초등학교 ‘오순도순글숲’ 도서관[제주], 글마루작은도서관[부산], 꿈나무책놀이방[서울], 남문초등학교[부산],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인천], 달리도서관[제주], 대구동성초등학교 늘벗도서관[대구], 대정골지역아동센터[제주], 동녘도서관[제주], 마포구립서강도서관[서울], 민주공원[부산], 사상도서관[부산], 성림초등학교도서관[강원춘천], 성지달팽이작은도서관[부산], 신호초[부산], 안골포초등학교반딧불도서관[경남창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책놀이터[경기고양], 영종도서관[인천], 오남중학교도서관[서울], 오안초등학교도서관[강원홍천],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제주], 우리동네도서관[부산], 재미있는느티나무도서관[경기고양], 정선꿈꾸는도서관[강원정선],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짜장[대전], 진달래어린이도서관[인천], 책마루도서관[부산], 책방골목문화관[부산], 책이랑도서관[경기성남],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인천], 콩세알도서관[인천], 포항시립포은도서관[경북포항], 풀잎작은도서관[부산], 품앗이어린이도서관[인천], 화명도서관[부산], 흥덕문화의집[충북청주] 평화박물관





▶ 전시물

-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150종 (어린이 110종, 청소년 40종)
『2012어린이청소년평화책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열어 보렴” 평화 책 속 이야기와 관련된 소품이 들어가 있는 30개의 서랍장
- “그림책 프린트” 『평화란 어떤 걸까?』 – 사계절출판사 후원

▶ 어린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도서관별 참여프로그램참조)

▶ 도와주신 분들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선정위원회

공지희 동화작가	이선주 인권교육센터 활동가
엄혜숙 아동문학평론가	유문조 그림책작가
유영진 아동문학평론가	이복희 아동도서 편집자
이혜영 도서관활동가	임지연 아동문학평론가
허은미 어린이책작가	
기획 김미선, 엄혜숙, 조은	자원활동 김성현
지역네트워크 류지현(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정윤주(부산어린이어깨동무)	
표지디자인 이지선(문화동네)	표지그림 © 장경혜, 창비]

▶ 책 기증 출판사

- 갈라파고스 • 개마고원 • 개암나무 • 걷는나무 • 겹둥소 • 고래이야기 • 고인돌 • 꿈틀 • 나무생각 • 낫은산 • 내인생의책 • 느림보 • 다른 • 달리 • 담푸스 • 대교출판 • 돌베개 • 디자인하우스 • 뜨인돌어린이 • 마루별 • 맹&앵 • 문학과지성사 • 문학동네 • 미래M&B • 바람의아이들 • 바오로딸 • 베틀북 • 별숲 • 별천지 • 보리 • 보림 • 보물창고 • 봄봄 • 북뱅크 • 북인더캡 • 분도출판사 • 비룡소 • 사계절 • 사회평론 • 삶이보이는창 • 새만화책 • 생각과느낌 • 서해문집 • 스토리보울 • 시공주니어 • 아지북스 • 애니북스 • 양철북 • 열린책들 • 우리교육 • 웅진주니어 • 을파소 • 재미마주 • 재미주의 • 주니어김영사 • 주니어파랑새 • 중앙북스 • 지혜정원 • 창비 • 책과통나무 • 책세상 • 책읽는곰 • 철수와영희 • 청년사 • 크레용하우스 • 파란자전거 • 푸른나무 • 푸른숲 • 푸른책들 • 풀빛 • 한겨레 • 한림 • 한솔수북 • 현북스 • 현암사 • 황소걸음 • 후마니타스

전시 일정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 전시회 “지령이 울음소리를 들어봐”

A 그룹

상시	곶자왈작은학교 (제주)
06.11~06.15	귀덕초등학교도서관 “오순도순글숲” (제주)
07.01~07.20	대정골지역아동센터 (제주)
08.13~08.24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
09.03~09.14	달리도서관 (제주)
09.24~10.08	동녘도서관 (제주)
10.12~ 상시	강정마을평화북까페 (제주)

B 그룹

06.01~06.15	괴정초등학교도서관 (부산)
06.21~06.30	책마루도서관 (부산)
07.17~07.28	사상도서관 (부산)
08.13~08.24	성지달팽이작은도서관 (부산)
09.22~09.23	민주공원 (부산)
10.08~10.12	남문초등학교 (부산)
10.22~11.03	안골포초등학교반딧불도서관 (경남 창원)

C 그룹

05.01~05.14	우리동네도서관 (부산)
06.05~06.19	화명도서관 (부산)
07.01~07.30	책방골목문화관 (부산)
08.01~08.15	풀잎작은도서관 (부산)
10.08~10.20	신호초등학교 (부산)
상시	글마루작은도서관 (부산)



D 그룹

-
- 06.12~06.30 영종도서관 (인천)
 08.06~08.31 진달래어린이도서관 (인천)
 09.03~09.21 품앗이어린이도서관 (인천)

 09.24~10.12 콩세알도서관 (인천)
 10.15~11.03 골목도서관 (인천)
 11.05~11.23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인천)

E 그룹

-
- 06.04~06.08 성림초등학교도서관 (강원 춘천)
 06.19~06.21 꿈나무책놀이방 (서울)
 07.09~07.21 어린이청소년도서관책놀이터 (경기 고양)

 08.13~08.18 책이랑도서관 (경기 성남)
 09.01~09.14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서울)
 10.05~10.15 오남중학교도서관 (서울)
 10.20~11.04 정선꿈꾸는도서관 (강원 정선)
 11.07~11.30 경기도시립미술관 (경기 안산)

F 그룹

-
- 06.08~06.14 대구동성초등학교 (대구)
 06.18~06.30 포항시립포은도서관 (경북 포항)

 7월~8월 중 재미있는느티나무도서관 (경기 고양)
 09.03~09.15 군포시중앙도서관 (경기 군포)
 09.18~10.02 흥덕문화의집 (충북 청주)
 10.06~10.20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짜장 (대전)
 11.01~11.13 오안초등학교도서관 (강원 홍천)
 11.21~11.30 재미있는느티나무도서관 (경기 고양)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을 선정하며

평화가 무엇이냐.

- 글: 문정현, 조약골, 곡: 조약골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은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평화책 150권을 선정하기 위한 우리의 의도는 위 노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평화’ 하면 6.25전쟁 · 핵무기 · 제3세계의 기아와 전쟁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힘이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한다거나, 누군가는 배불리 먹으면서 다른 누군가는 굶주리고 있다거나, 어린이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과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화라고 하면 고요하고 조용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평화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조용한 평화가 더 무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고 낮은 곳에 많은 아픔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등한 세계를 향해 분노하고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평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겁고 어두운 책만 선정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화란 재미있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에 바싹 다가선 일상적 이야기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참다운 평화란 무엇일까라는 성찰을 전해주는 책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평화 사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 환경적 시각을 담은 책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정위원들은 평화책을 크게 네 개로 범주화하여 평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이 자료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첫째 더불어 생명입니다.

지구의 주인은 자연입니다. 모든 생명의 평화를 함께 추구해야 인간도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짝이는 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인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서부터 사라져가는 동물에 대한 그림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제가 드러나는 논픽션 외에도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 생태적 삶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자연과 인간 사이의 대칭적 세계관이란 무엇인지를 은유적으로 형상화한 동화를 고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둘째 전쟁 없는 세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시선에서 전쟁의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참혹한 실상과 아픔을 간접 경험하는 것, 반대로 전쟁 중에도 무너지거나 말살되지 않는 생명 존중의 사례를 중심으로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분단 문제와 4.19,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문제를 다룬 책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 없는 세상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이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를 반추하고, 사회적 통념을 깨는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셋째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전쟁, 탈핵과 같은 거대 담론의 문제만을 평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통념을 넘어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을 통해 미시적 폭력과 관계, 소통, 평화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책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책의 경우 학교와 친구간의 문제 속에서 야기되는 폭력에 주목했습니다.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폭력의 문제를 디테일하게 묘사해 놓은 문학 작품을 찾고자 했으며 폭력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일러주는 지침서들도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차별 없는 세상입니다.

평화란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이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림책은 아동의 인권과 함께 인종차별, 민족차별, 성차별, 장애 등 차이에서 비롯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독자인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게,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는 차별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거나, 우리 사회 편견을 향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떠들썩한’ 책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의 목소리와 입장에 서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책들을 배치하는 데도 애를 썼습니다.

여기 소개된 150권의 책은 다만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과문한 까닭에 여기 실리지 못했지만 평화를 생각하게 하는 더 좋은 책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혜안을 가지고 이 자료집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리에서, 밀양에서, 강정에서, 평택에서, 혹은 차가운 감옥에서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해 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5월

2012 어린이 평화책 선정위원회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서평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 전시회

서평 공지희 • 이선주 • 엄혜숙 • 유문조 • 유영진 • 이복희 • 이해영 • 임지연 • 허은미





어린이



가시내

김장성 글, 이수진 그림 | 사계절 | 2006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가시내란 말은 갓을 쓰고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 여자 아이 '갓쓴애'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이 나뉘어 있던 시대상을 알려줌과 동시에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그 역할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도 보여준다. “여자아이가 무슨?", “남자아이가 왜?"라는 말에 얹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물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도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갈 테야 목사님

조은수 글·그림 | 웅진주니어 | 2010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문이왕, 문고집, 갈테야’는 우리 시대 대표적인 통일운동가 문익환 목사님의 별명이다. 문익환 목사님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랫동안 평화통일 운동에 열정을 바쳤다. 통일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코 희망을 잊지 않았고, 순수하며 당당하게 살았던 한 평생을 다양한 꼴라주 기법으로 표현했다.



검은 마을 하얀 마을

류보러 글·그림 | 최현경 옮김 | 책읽는곰 | 2010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하얀 마을과 검은 마을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밸길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마을에 심한 가뭄이 닥치자 그제야 비로소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드디어 비가 내리고, 그 비로 인해 두 마을 사람들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달라보였던 걸모습이 씻겨 나간다. 뒤늦게야 모두가 검은 머리카락과 노란 피부를 가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한 편의 우화를 통해 우리의 분단 현실도 되돌아보게 하는 그림책.



기분

다니카와 슈나타로 글 | 초 신타 그림 | 엄혜숙 옮김 | 한림출판사 | 2011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기분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신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우리의 기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 이러한 기분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낀다. 하루 종일 내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친찬히 살펴보고, 내 기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기분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보게 하는 그림책.

거짓말 같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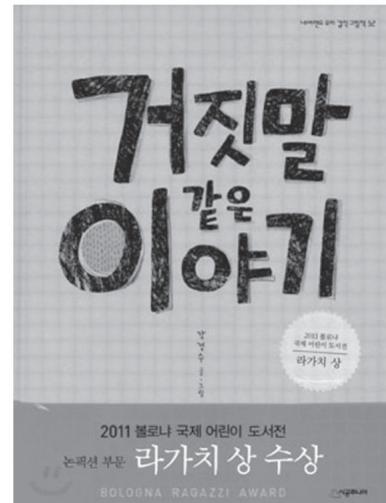
강경수 글 · 그림 | 시공주니어 | 2011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이 책은 그림책이지만 표지에 ‘그림’이 없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는 제목이 그림 대신에 표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안데르센이 ‘그림 없는 그림책’이란 동화를 쓴 적이 있는데, 이 그림책 표지는 ‘그림 없는 그림책 표지’인 셈이다. 하지만 표지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그렇다면 일단 독자의 눈을 끄는 표지로서 성공한 게 아닐까.

그림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책은 아이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며 사는 아이와 그렇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러한 내용을 리듬감 있는 화면 구성을 통해 표현한다. 홀수 화면에서는 한 아이가 등장해서 “안녕? 내 이름은 하산이야.” 하는 식으로 자기소개를 한다. 이러한 화법은 독자가 그림책에 등장하는 아이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어지는 짹수 화면에서는 제삼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 아이가 현재 처한 현실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키르키스스탄에 살고 있는 하산은 매일 지하 쟁도에서/ 오십 킬로그램이 넘는 석탄을 실어 올립니다./ 배고픈 동생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법은 독자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동조하기보다 그 아이가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한다. 독자가 이성적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홀수화면에서 자기소개의 말은 화면 왼쪽에 배치하고, 등장인물은 화면 오른쪽에 배치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짹수 화면은 등장인물의 현실을 표현하는데, 이 화면은 늘 펼친 화면으로 전개된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솔이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아이다. 아이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러 아이들은 솔이와 완전히 대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아이들은 탄광에서 일하고, 카펫 공장에서 일하고,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혼자 맨홀에서 살고,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소년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솔이가 어른이 되면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데 비해 이 아이들은 미래의 꿈은커녕 현재의 생존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 아이들의 현실을 알게 된 솔이는 잠시 말문이 막혀 있다가 “거짓말이지?” 하고 묻는다. 그러자 이 아이들은 “아니, 거짓말 같은 진짜 우리 이야기란다.” 하고 대답한다. 이 대답은 솔이에게 하는 대답이자 동시에 독자인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이 그림책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아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작가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충격을 받아서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가 그 시대만의 일이 아니고,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가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작품임을, 이 그림책을 읽고 새삼 느꼈다.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작은 변화로부터 지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구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작가의 말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



곰이와 오푼돌이 아저씨

권정생 글 | 이담 그림 | 보림 | 2007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동화작가 권정생이 1980년대에 쓴 작품으로, 작고 후에 그림책으로 나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된 작품이다. 한국전쟁 중에 피난 가다가 폭격에 맞아 죽은 소년 곰이와 치열한 전투 끝에 쓰러진 인민군이었던 오푼돌이 아저씨. 두 사람이 진달래가 불게 피어나던 어느 봄날 밤에 치악산 골짜기에서 깨어나 떠도는 영혼으로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작품의 내용을 이룬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곰이'는 곰처럼 우직하고 순박한 우리 민족의 심성을, '오푼돌이'는 남북으로 갈라져 반쪽이 된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글에서는 두 사람이 고향과 전쟁에 대한 회상을 하고(과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현재), 곰이네 할머니가 들려 준 옛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도입되는 등, 세 가지 시점이 뒤섞여 있어 다소 복잡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각각 다른 색조와 화면으로 표현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준다. 그림책이 지닌 특성을 한껏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책에서는 호랑이가 한 마리 등장하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와는 달리 호랑이가 두 마리 등장하는 이야기로 변형되어 도입되는데, 호랑이들은 외세인 강대국들로, 오누이는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남북한으로 여겨진다.

이 그림책을 읽다 보면, 한국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어버렸고 죄 없이 죽어갔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쪽으로 갈라진 채 전쟁의 쓰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라는 현실도 깨닫게 된다.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다. 이 그림책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과



긴장감이 감도는 한반도의 현실을 일깨우며, '곰이'와 '오푼돌이 아저씨'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평화가 넘치기를 더욱 더 간절히 염원하게끔 한다.

꽃할머니

권운덕 글 · 그림 | 사계절 | 2010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엮었다. "나 같은 사람 다시는 없어야지. 내 잘못도 아닌데 일생을 다 잊어버리고……." 할머니의 그 마음을 짓이겨진 꽃으로, 그러나 남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워하는 꽃으로, 아픔을 함께 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수줍게 웃는 꽃으로 그려냈다. 전쟁은 여성에게 성폭력과 함께 온다. 그러나 작품에 계속 등장하는 '눈'은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증언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나는 곰입니다

장 프랑수아 뒤몽 글 · 그림 | 이주희 옮김 | 봄봄출판사 | 2012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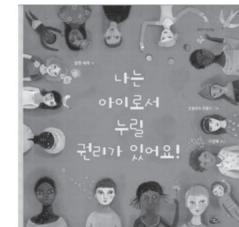
우리는 지하철이나 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그러나 그뿐, 노숙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노숙자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스스로 '곰'이라고 지칭하는 '나'를 통해 노숙자가 과연 우리와 다른 존재인가를 진지하게 묻는다.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고,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작품이다.



나는 아이로서 누릴 권리가 있어요

알랭 시례 글 | 오렐리아 프롱티 그림 | 이경혜 옮김 | 고래이야기 | 2010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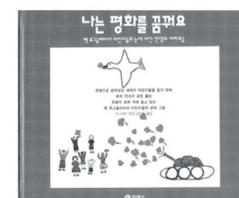
모든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자라는 동안 내내 인간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이러한 어린이의 권리는 어른들이 인심 쓰듯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누려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은 어른들이 부끄러움과 함께 어린이보다 먼저 읽어야 한다. 또 어른들이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읽어야 한다.



나는 평화를 꿈꾸요

유니세프 역음 | 김영무 옮김 | 비룡소 | 1994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전쟁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다.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쓴 글과 그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아이들이 전쟁의 처참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내 탓이 아니야

레이프 크리스티안손 글 | 딕 스텐베리 그림 | 김상렬 옮김 | 고래이야기 | 2007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여러 명의 아이들이 무리 지어 모여 있고 그 앞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다. 무리의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 독백처럼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한다. 친구가 왜 울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지만 내 탓은 아니라고만 한다. 용기가 없어서 말리지도 못했고. 다함께 때려서 나도 같이 한 대 때렸을 뿐이고, 그 아이는 명청하고 울보이고 용기도 없고, 짜증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란다. 그럼 대체 누구의 탓일까? 책 뒤에 실려 있는 흑백의 사진들이 정말 내 탓이 아닐까, 자꾸 되돌아보게 한다.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하세가와 요시후미 글 · 그림 | 장지현 옮김 | 고래이야기 | 2009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이 그림책은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즉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때, 나를 둘러싼 나의 옆집, 옆 마을, 옆 나라의 아이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겪는 힘든 노동과 전쟁의 참상을 어떠한지 보여준다. 이는 곧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동시대성 내지는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책 매체의 특성인 화면 구성과 전개를 적절하게 활용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넌 정말 멋져

미야니시 타츠야 글 | 미야니시 타츠야 그림 | 허경실 옮김 | 달리 | 2011년 | 그림책, 함께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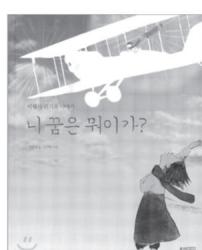
난폭하고, 심술궂고, 뻔뻔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는 친구가 없다. 어느 날 티라노사우루스는 약한 공룡들을 괴롭히다 물속에 빠지지만, 물속의 착한 친구 엘라스모사우루스 덕에 목숨을 구하고,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착한 친구를 만난 티라노사우루스는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난폭한 말을 하지도 않는다. 나쁜 사람도 언제든지 우연한 계기를 통하여 새롭게 변할 수 있으며, 진정한 우정이란 어떤 것인지 진한 감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누구라도 친구

신자와 도시히코 글 | 아베 히로시 그림 | 유문조 옮김 | 문학동네어린이 | 2009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이 세상의 우리는 친구가 되기 위해 만난다. 깊은 숲속에서도 넓은 아프리카 초원에서도 우리는 친구가 되기 위해 만난다.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우리는 만난다. 이 세상의 모든 너와 너와 너. 우리는 모두 다 친구이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의 친구라면 이 세상은 하나가 될 것이다.



나 꿈은 뭐이가?

박은정 글 | 김진화 그림 | 응진주니어 | 2010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여성으로서, 비행사로서, 독립 운동가로서 뜨겁게 살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에 대한 그림책.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에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백성의 설움, 낯선 이국에서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이 있었지만 권기옥은 끝끝내 꿈을 버리지 않았다. 비행 학교에 입학하고, 고되고 위험한 비행 훈련 끝에 힘차게 하늘을 날아오른다. 푸른 창공 위에서 그녀는 우리에게 묻는다. “나꿈은 뭐이가?” 끌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장면을 구성하고 사진 촬영한 화면이 독특하다.



달 샤베트

백희나 글 · 그림 | 스토리보울 | 2010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몹시도 더웠던 어느 여름 밤, 자꾸만 데워져 가는 지구를 걱정하다가 떠오른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모두들 창문을 꼭꼭 닫고, 에어컨을 쌩쌩, 선풍기 를 쟁쟁 틀며 잠을 청하는데, 똑똑똑! 창밖의 달이 녹아내린다. 부지런한 반장 할머니는 달 물을 받아 샤베트를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달 샤베트를 먹은 이웃들은 더 이상 더위를 느끼지 않는다. 더 이상 선풍기와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연 채 시원하고 달콤하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든다. 그림책 작가 백희나가 조물조물 만들어 촬영한 화면이 아름답다.



달라도 친구

허은미 글 | 정현지 그림 | 응진주니어 | 2010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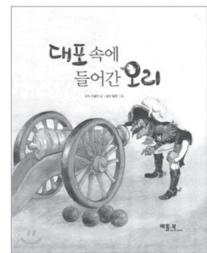
온하는 말이 없다. 슬기는 거미를 좋아하고, 찬이는 다리가 불편하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지우, 피부색이 다른 미누, 일본에 살면서 조선학교에 다니는 리향이, 이 아이들은 모두 다 다르다. 그런데 다르다는 건 어떤 걸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걸까? 생김새도, 성격도, 사는 곳도 다르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걸까? 꽃이 저마다 달라서 아름답듯이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낳는다는 것을 이 작품은 역설하고 있다.



대포 속에 들어간 오리

조이 캐슬리 글 | 로빈 벨튼 그림 | 흥연미 옮김 | 베를북 | 2010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장군의 군대가 전쟁을 선포한다. 그런데 대포를 쓸 수 없다. 하나뿐인 대포를 오리가 차지하고 알을 품었다. 애기 오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잠시 전쟁은 쉬기로 하자! 그리고 맘껏 애기 오리의 탄생을 축하하자!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무기도 생명을 품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리가 알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한 생명의 탄생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더 커다란 대포를

후타미 마사나오 글 · 그림 | 김현주 옮김 | 한림출판사 | 2011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임금님과 여우가 서로 대포를 앞세워 싸움을 계속 하니까 각자의 대포는 더 커지고, 셀 수 없을 만큼 더 많아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기기묘묘한 모양으로 자꾸만 변해간다. 마침내 임금님은 대포를 버리지 못하고 육조로 만들어 쓰다가 그 이후로는 대포를 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기발한 상상력과 재미있는 그림을 통해 무분별한 욕심으로 군비경쟁을 하는 인간 세상을 빗대고 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장경혜 글 · 그림 | 문학동네 | 2009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책에는 ‘둥근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는 하루 종일 햇살이 스며들 틈도 없는 연립주택 단칸방에서 누워 지낸다. 아이가 뛰어노는 세상은 텔레비전 속 햇살 눈부신 들판이고,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의 해바라기 꽃이 흐드러진 들판이다. 오늘도 아이는 그 세상 속으로 나들이를 한다. 둥근 해처럼 맑고 밝게,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벗고 씩씩하게.



둥지 상자

김황 글 | 이승원 그림 | 한솔수북 | 2009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새들이 찾아올까?” 옛날 독일에 새들의 노랫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어 나무에 둉지 상자를 달아준 남작이 있었다. 이 책은 베를레프슈 남작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새를 사랑해서 새집을 만들었더니 더 많은 새가 살고, 나무가 살고, 마을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둉지 상자를 만들어 나무에 나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이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뒤에 여러 가지 둉지 상자 모양과 재료들을 보여주는 정보와 둉지 상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둉지 상자 전개도도 실려 있다.





딸꾹질

김고은 글 · 그림 | 아지북스 | 2010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엄마는 바빴습니다. 아빠도 바빴지요. 그래서 짹짹이에게 조용히 좀 해! 라고 말씀하셨고, 짹짹이는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딸꾹질을 만들었다는 발상을 통해 아이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연필로 꼼꼼히 그린 얼굴과 종이 오려붙이기, 중간중간 들어간 말통의 글, 딸꾹질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기상천외한 처방이 즐거움을 선사한다.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하야타니 겐치로 글 | 초 신타 그림 | 햅살과나무꾼 옮김 | 양철북 | 2006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구덩이에 빠진 개 로쿠베를 구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힘센 남자들이 있어야 된다며 시끄럽게 수다만 떨고 돌아가는 엄마들이나 사람이 아니고 개라서 다행이라며 그냥 지나치는 아저씨에 비해 로쿠베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비눗방울 불어주는 아이들의 천진함이 사랑스럽다. 하야타니 겐치로 작품이 지향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상냥함이 잘 드러난 그림책이다.



마이볼

유준재 글 · 그림 | 문학동네어린이 | 2011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야구는 아버지와 나를 이어준 가장 쉬운 통로였으며 멋진 미술이었다.” 유명 인사는 아니었지만 가족의 든든한 가장이었던 평범한 아버지. 이 책은 야구를 매개로 어린 시절 아버지와 소통했던 기억을 아름답게 표현한 그림책이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캐치볼을 하는 아버지와 아이를 볼 때면 어린 시절 헛별 포근하던 집 앞 작은 마당으로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작가. 주저앉고 싶은 고비마다 작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던진 공의 의미를 반추했단다. 이 책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아이들의 마음을 잇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명애와 다래

이형진 글 · 그림 | 느림보 | 2003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다래는 놀이 공원에 가고 싶다. 엄마와 아빠랑 놀이 공원에 가서 친구처럼 은하 열차도 타고 싶다. 하지만 다래네 엄마와 아빠는 병석에 계신 할머니를 돌보느라 다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울다 잠이 든 다래는 꿈속에서 할머니와 놀이 공원에 가게 되는데, 할머니는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점점 젊어져 다래보다 어린 모습이 된다. 주름으로 쭈글거리고, 병으로 일그러진 할머니도 옛날에는 다래와 같은 예쁜 모습이었던 것. 다래는 병들어 누워 계신 할머니가 어느새 친구처럼 느껴진다.



물과 숲과 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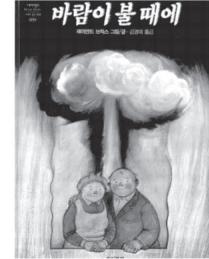
몰리 뱅 글 · 그림 | 최순희 옮김 | 마루벌 | 2006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우리 모두의 것이지만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자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 지구를 오래도록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풀밭을 공동으로 쓰는 마을을 통해 지구 자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화를 들려준다. 저마다 자원을 최대한 많이 써서 당장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언젠가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칼데콧 그림책 수상 작가 몰리 뱅의 그림이 아름답다.

바람이 불 때에

레이먼드 브릭스 글·그림 | 김경미 옮김 | 시공주니어 | 1995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은퇴한 노부부가 시골에 살면서 겪게 된 핵전쟁의 무시무시한 참상을 보여주는 만화풍의 그림책이다. 핵폭탄이 터지기 전에는 대체로 밝은 톤의 그림이었지만, 핵폭탄이 터진 후 그림은 점점 어두워지면서 방사능 오염에 힘없이 무너져 가는 노부부의 모습이 큰 충격을 준다.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자식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이전에 치렀던 세계대전의 참상, 정부를 신뢰하려는 노인의 모습에 유머와 풍자를 섞어 가면서 앞으로 또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핵전쟁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다.



바보 사냥꾼과 멋진 사냥개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 글·그림 | 서애경 옮김 | 현복스 | 2012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이 책의 주인공은 사냥개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지만 사냥터에서는 뺑집짜리 사냥개. 주인에게 오리 대신 나뭇가지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작은 가족일 뿐이며, 그 안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조화롭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준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브라운 와일드스미스의 그림이 이야기의 감동을 더한다.



반짝이는 물을 보았니?

조은수 글·그림 | 창비 | 2010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사과에서 시작해 구름, 강, 코끼리, 나무, 사람, 지구, 습관으로 이어지는 8개의 장이 수수께끼 고개를 넘듯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아삭~!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 고이는 '사과'의 물에서 빗물, 강물로 넓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지구의 물로 넘어간다. 사막화와 난개발, 과소비로 인해 물이 부족해진 지구의 모습과 그 원인인 사람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습관의 중요성도 알려 준다. 책의 제목은 시애틀의 마지막 추장 연설문에서 따왔다.



비무장 지대에 봄이 오면

이억배 글·그림 | 사계절 | 2010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비무장 지대.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군대와 무기가 없는 평화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그곳은 철조망이 쳐져 있고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금지 구역이다. 그래도 그곳에는 봄이 되면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물범 가족이 물장구를 친다. 봄은 해마다 비무장 지대에도 찾아오는데,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봄은 왜 오지 않는 걸까? 할아버지의 봄은 언제나 찾아올까?



빨리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마스다 미리 글 | 히라사와 잇페이 그림 | 김난주 옮김 | 뜨인돌어린이 | 2011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빨리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습이 다 달라요. 빨리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쉬면서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림책의 조그만 배처럼 아이들은 제각기 자기 나름의 속도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빨리빨리란 말은 욕심 많은 어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 빨리빨리 재촉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응원이라는 것을 새삼 일깨워 준다.





뽀뽀가 좋아

카렌 콜럼 글 | 세레나 게디스 그림 | 고수미 옮김 | 을파소 | 2011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쉿! 책장을 넘기는 순간, 놀라운 마법이 펼쳐집니다. 이 세상이 온통 행복으로 물들 테니까요.” 엄마와 함께 쇼핑센터에 간 토미. 그런데 토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표정이다. 토미가 방긋 웃으며 뾰뽀를 날리자 놀라운 마법이 펼쳐진다. 세상은 온통 토미의 뾰뽀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즐겁고 행복해지기 시작한 것. 꼬마 토미가 전파하는 행복 바이러스 뾰뽀. 따사롭고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행복하게 펼쳐진다.



사라 버스를 탄다

윌리엄 밀러 글 | 존 워드 그림 | 박찬석 옮김 | 사계절 | 2004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날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사라는 늘 뒷자리에 앉는다. 그곳이 흑인들의 자리다. 흑인은 버스 앞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그곳은 백인들의 자리다. 흑인과 백인은 섞여 앉을 수 없다. 왜? 그게 법이니까. 그러나 오늘 사라는 그 법을 지키고 싶지 않다. 이 책은 1955년 12월, 버스 뒷자리에 앉기를 거부한 로사 파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새끼 표범

강무홍 글 | 오승민 그림 | 웅진주니어 | 2012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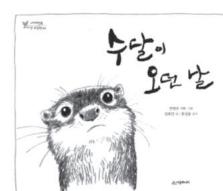
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황새…….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동물들의 이름이다. 이 책의 주인공 새끼 표범은 어미를 따라 바위산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빠져 동물원으로 끌려오게 되는데……. 일제 강점기 말, 인간에 의해 총살되거나 독살된 동물들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풀어낸 팩션 그림책으로, 새끼 표범의 눈에 비친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한 욕망이 담담한 글, 비장한 그림과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자아낸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멤 폭스 글 | 레슬리 스타울 그림 | 김태경 옮김 | 비룡소 | 2011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이 책은 인종, 성별, 국가, 민족,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그러한 평등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신과 모습이 다른 사람이나 생활 방식은 낯설고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 작품은 다양한 문화와 민족, 성, 사회 계층, 삶의 방식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얘야, 네가 어떤 어린이든/ 어느 나라 어린이든/ 세상 어린이들은 다 너와 똑같단다.”라는 말이 이 작품의 주제를 한마디로 보여준다.



수달이 오던 날

김용안 글 | 한병호 그림 | 한성용 감수 | 시공주니어 | 2012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수달 보호시설인 ‘한국수달연구센터’가 이 책의 배경. 어느 날 센터에 로드킬을 당해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이 들어온다.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화자는 홀로 낯선 곳에 온 새끼 수달이 센터에 적응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정성스레 돌보며 그 과정을 관찰일기로 남긴다. 수달의 이야기를 통해 수달 보호 및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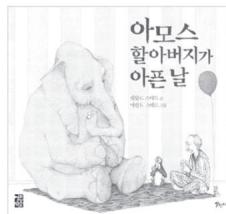
이현정 글 | 박재현 그림 | 맹&앵 | 2012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말' 이란 목소리로 나타내는 생각이나 느낌의 표현이다. 사람은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나타내며 타인과 소통한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말이 있다. 그 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도 있고 상처를 주는 말도 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힘내' 따뜻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준다. 사랑과 용기와 희망을 준다. 반면 상처가 되는 말은 미움을 낳고 분쟁의 씨앗이 되어 폭력을 일으키기도 한다. 상처가 되는 말은 말 그 자체가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사회는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바빠지고 있다. 바쁜 생활은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무한의 경쟁 속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며 점점 고립되어 가게 한다. 이웃과 정이 담긴 말로 마음을 주고받기보다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감정을 해소하게 된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외로워지고 감정은 메말라간다. 표현되는 말도 점점 거칠어진다. 아이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사랑의 말로 격려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들이 밖으로 내몰려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아이들의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왕따나 끔찍한 폭력은 이러한 연유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도 있듯이 말의 힘은 무척이나 세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을 열게 하고, 싸늘해진 마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 또 말은 사람의 심성을 길러주기도 한다.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은 마음도 고와진다. 거친 말은 행동도 거칠게 만든다.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가치를 새삼 일깨워 주는 고마운 책이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고 써야 될 소중한 말들. 이 소중한 말들을 아이들이 사용하고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이 세상은 좀 더 평화롭고 따뜻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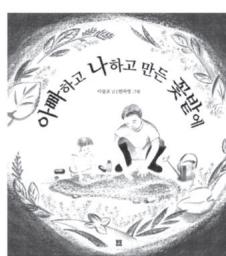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

필립 C. 스테드 글 | 에린 E. 스테드 그림 | 유병수 옮김 | 별천지 | 2011년 | 그림책, 함께 사는 세상
아모스 할아버지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돌봐주는 일을 한다. 코끼리와는 체스를 두고, 거북이와는 경주를 하고 수줍은 팽귄을 위해서는 같이 앉아 있어 주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기에 걸려 동물원에 가지 못하게 된다.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동물들은 동물원이 끝난 뒤 버스를 타고 할아버지네 집으로 간다. 이번에는 할아버지 대신 동물들이 변갈아 할아버지를 돌보아 준다. 할아버지와 동물들의 따뜻한 우정과 소통이 잔잔하게 그려지고 있다.



아빠가 우주를 보여준 날

울프 스타르크 글 | 에바 에릭손 그림 | 사과나무 옮김 | 크레옹하우스 | 2002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아이에게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아빠. 아빠는 커다랗고 광활한 우주를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이는 둘 위를 꼬물꼬물 기어가는 작은 달팽이,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보리, 엉겅퀴꽃, 그리고 작은 웅덩이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아빠를 보고 이 모든 것이 우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바로 나를 둘러싼 우주라는 것. 파스텔과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아빠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펼쳐진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상교 글 | 한자영 그림 | 봄봄출판사 | 2011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동요 '꽃밭에서'는 한국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헤어져야 했던 수많은 피란민들의 마음을 울리며 널리 전해졌다. 이 노래를 모티브로 전쟁터에 나갔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빠를 기억하는 소년의 애틋한 마음을 그림책에 오롯이 담아냈다. 전쟁을 치르면서 아이들도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잊어버리는 크나큰 슬픔을 겪지만 즐거웠던 추억으로 희망을 일으켜 세운다.



안 돼!

데이비드 맥페일 글·그림 | 시공주니어 | 2012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안 돼!"라는 유일한 말 한마디가 제목이자 내용의 전부이다. 소년은 편지 한 장 부치러 나갔다가 여러 가지 폭력적인 현실 세계에 마주치게 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안 돼!"라고 용기를 내어 말한다. 나중에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돌아오는데, 이미 왔던 길은 전혀 다르게 따뜻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 겁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한 말 한 마디, "안 돼!"를 외쳐 보자.



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초 글 | 와다 마코토 그림 | 장지현 옮김 | 보림 | 2006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안 들린다는 건, 참 대단해. 그렇게 많은 것이 보이다니.", "들린다는 건 그런 건가 봐. 조금밖에 볼 수 없나 봐." 장애는 불편하지만 슬픈 것이 아니며, 보지 못하거나 들리지 않을 때는 또 다른 감각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이 작품은 담담하게 일깨워 준다. 독자로 하여금 장애 문제를 낯추어보거나 특별하게 보도록 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은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그림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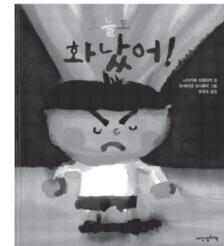
에리카 이야기

루스 벤더 제 글 | 로베르토 인노센티 그림 | 차미례 옮김 | 마루벌 | 2005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로 달려가는 기차를 타고 가던 어느 부모가 포대기에 꽁꽁 싸맨 어린아이를 몰래 기차 창문 밖으로 던진다. 다행히 그 아이는 살아남아 누군가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에리카'라는 이름으로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와 손자까지 보았다. 에리카는 전쟁 당시 부모가 처했던 상황과 심정을 오랫동안 상상하며 지내왔다. 이 대답 없는 상상의 질문들을 통해서 잔인하고 슬픈 전쟁의 틈바구니에서도 피어난 소중한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오늘도 화났어

나카가와 히로타카 글 | 하세가와 요시후미 그림 | 유문조 옮김 | 내인생의책 | 2010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엄마는 화를 낸다. 화분을 깨뜨렸다고 아빠가 화를 낸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어른들은 화를 낸다. 물론 아이들도 화를 낸다. 까닭 없이 꿀밤을 맞거나 귀중한 장난감이 나도 모르게 버려진다면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마음이 시원해지지는 않는다. 화를 내고 난 다음 마음은 더욱 찌푸려진다. 사람들은 왜 화를 낼까. 화를 내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 어떤 일에 화가 나며 화가 난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하는지 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하는 그림책.



왜?

니콜라이 포포프 그림 | 현암사 | 2000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글자가 하나도 없는 그림책. 글이 없어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또렷하게 드러난다. 꽃향기를 맡고 있는 개구리로 시작되는 이 책은 크게는 전쟁의 원인을, 작게는 아이들 사이에서 생기는 사소한 싸움이 왜 시작되는지 말해 준다. 마지막 장의 시든 꽃 한 송이와 다 찢어진 우산은 싸움의 결과에 대한 가슴 쓰린 은유와 상징이다.



우리 집엔 작은 돌고래가 살아요

히메노 치토세 글 · 그림 | 자체정원 | 2011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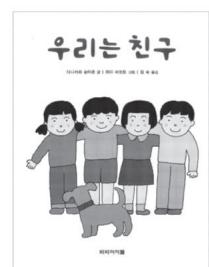
자폐증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여동생. 오빠인 나는 그 여동생을 '우리 집에 사는 작은 돌고래'라고 말한다. 또 자기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여동생을 '작은 돌고래'라고 부르며, 여동생은 가족에게 보물이라고 한다. 나아가 여동생과 같은 돌고래 아이들은 '넓고 깨끗한 사람들의 마음'에 산다고 말한다. 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자세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우리는 친구

다니카와 슈나타로 글 | 와다 마코토 그림 | 김숙 옮김 | 북뱅크 | 2005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친구란 감기가 옮아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 친구란 집에 갈 때 함께 가고 싶은 사람, 친구란 모두가 돌아가 버린 뒤에도 혼자 남아 기다려 주는 사람, 혼자서는 재미없는 일도 둘이 하면 재미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이다. 잘 사는 아이나 가난한 아이, 건강한 아이나 아픈 아이.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뒷부분의 흑백 사진들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마지막에 들어간 친구에 대한 시가 따뜻한 여운을 남긴다. 친구는 멋지다!





우리는 한가족이야

핀 판 헤스트 글 | 닌케 탈스마 그림 | 정낙선 옮김 | 고인돌 | 2011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이 그림책은 입양이란 슬픈 일이 아니라 또 다른 부모를 만나는 기쁜 일이라고 일깨워 준다. 입양된 아이에게는 낳아준 부모만이 아니라 키워준 부모가 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모가 누구든 간에 입양된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작가 자신의 입양 경험에 바탕을 둔 이 그림책은 우리에게 입양에 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해 준다.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마리 프랑스 보트 글 | 파스칼 르메트르 그림 | 홍은주 옮김 | 문학동네어린이 | 2010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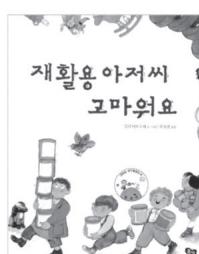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강한 몸과 마음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그림책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의 느낌을 무시하는 어른들에게 주저 없이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인공 미미와 고슴도치 친구 가스통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 위험한 상황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잘 풀어냈다.



이상해!

나카야마 치나쓰 글 | 야마시타 유조 그림 | 고향을 옮김 | 고래이야기 | 2009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여자의 일과 남자의 일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 여자의 특성과 남자의 특성은 고정적인 것일까? 이 그림책은 물고기의 생태를 통해 우리의 고정관념을 단숨에 날려버린다. 어릴 때는 모두 수컷이다가 가장 큰 것이 암컷이 되는 흰동가리, 수컷이 알을 돌보는 도화돔, 아빠가 아기를 키우는 해마, 암컷에게 붙어있는 몸집이 작은 수컷 초롱아귀의 모습은 고정적인 성역할로 인해 부자유스럽게 사는 인간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한다.



재활용 아저씨 고마워요

알리 미트구치 글 · 그림 | 김경연 옮김 | 블빛 | 2005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어느 날 크링겔 씨는 이사할 집을 구하다가 초록빛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아담한 집을 발견한다. 크링겔 씨가 살게 된 부자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가져야만 최고의 멋쟁이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미친 듯이 물건을 사들인다. 하지만 자꾸자꾸 사들인 새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다. 결국 집집마다 버린 물건들이 크링겔 씨네 집으로 모이게 되고, 크링겔 씨는 멋진 아이디어로 동네 분위기를 바꿔 버리는데……. 쉽게 물건을 사고 함부로 내다버리는 현대인의 태도를 꼬집으며 재활용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듣지 마세요

변선진 글 · 그림 | 바람의 아이들 | 2011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어른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 어른들이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의 두려움은 치과의 공포도 아니고, 낯선 외국인과의 만남도 아니다. 아이들의 진짜 두려움은 어른들의 표정 없는 무관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달콤한 초콜릿이 아니다.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이다.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듣지 마세요.”라는 강한 거부가 역설이 되어 “제발 나를 좀 제대로 봐 달라.”는 강한 외침으로 들린다.

쥐와 계

김중철 글 | 김고은 그림 | 웅진주니어 | 2009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계와 쥐가 오다가 친구가 되었다. 인심 좋은 계는 쥐를 놀려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배부르게 대접하였다. 그런데 쥐는 계가 놀라울 때마다 매번 자기 할 일만 하고 본 척도 하지 않는다. 마음씨 좋은 계는 급기야 쥐의 무정함에 화가 나서 쥐의 다리를 집게 다리로 꽉 깨물어버리고, 뒤늦게 쥐는 계에게 화해를 청하는데……. 일방적인 친구 관계는 계 속될 수가 없다. 좋은 친구로 오래 남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이 필요하다. 재미있게 시소를 타려면 양쪽에서 한 번씩 번갈아 굴러줘야 하듯이.



지구 엄마의 노래

윤여림 글 | 윤지희 그림 | 문학동네어린이 | 2012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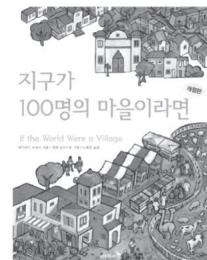
어떤 아이가 꽃을 들거나, 새 옷을 입거나, 초콜릿을 먹거나,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하는 동안 또 다른 어떤 아이는 꽃을 키우거나, 목화솜을 따거나, 카카오를 자르거나, 멀리 물을 찾으러 가야 한다. 이 작품은 지구에 사는 모든 어린이는 누구나 사랑받고 보호받을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며, 노동하는 어린이의 힘겨운 현실을 대조법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낸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데이비드 스미스 글 | 셀라 암스트롱 그림 | 노경실 옮김 | 푸른숲주니어 | 2011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70억 가까운 인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 이 지구를 100명의 마을로 상상해 보면 어떨까? 지구마을에 사는 100명 가운데, 38명은 수도가 없는 곳에 살고, 14명은 글씨를 전혀 읽고 쓰지 못한다. 10명은 하루에 2,2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고, 24명은 전기가 없는 곳에 살며, 텔레비전을 가진 사람은 45명,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22명뿐이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국적, 언어, 종교, 문화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및 환경 문제, 부의 편중 문제 등을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실감나게 보여준다. 아울러 어린이들 스스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한다.



지구가 더워졌어요

상드린 뒤마 로이 글 | 엠마누엘 우세 그림 | 김주경 옮김 | 을파소 | 2011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큰일 났어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바람에 동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마침내 동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답니다. 도대체 지구가 왜 이렇게 더워지는 걸까요?”

요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그림책이다. 재미있는 그림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동물들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임을 자연스럽게 일깨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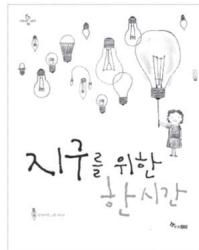


지구를 다 먹어버린 날

알랭 세르 글 | 실비아 보나니 그림 | 박희원 옮김 | 뜨인돌어린이 | 2011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우리가 빙하 마지막 조각까지 다 녹여 버린다면?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를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잡는다면? 우리가 숲의 나무를 마지막 한 그루까지 다 베어 버린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게 돈뿐이라면? 아메리카 인디언의 격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책으로,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에 대해 질문하는 그림책이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주변의 나무 한 그루도 돈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며, 이 병든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심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구를 위한 한 시간

박주연 글 | 조미자 그림 | 한솔수북 | 2011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지구의 밤은 뜨겁다. 어디를 가나 대낮처럼 밝은 도시의 불빛은 사람뿐 아니라 이 지구에서 함께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도 해롭다. 뜨겁게 달구어진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책은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전등 끄기 운동을 모티브로 하여,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이고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처음 시작은 단 한 시간이었지만, 그 한 시간 동안 지구의 운명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지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짝꿍 바꿔 주세요!

다케다 미호 글 | 다케다 미호 그림 | 고향 옮김 | 웅진주니어 | 2007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은지는 짹꿍인 민준이가 싫어서 학교에 가기가 싫다. 은지를 놀리기만 하는 민준이가 괴물같이 보일 뿐이다. 급기야 민준이는 은지가 아끼는 연필을 부러뜨리고, 은지는 지우개를 민준이에게 던지고……. 다음날 민준이는 부러진 연필을 테이프로 붙여 은지에게 준다. 연필을 받은 은지는 그제야 민준이가 짹꿍처럼 느껴진다. 새 학기 어느 교실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민준이가 은지를 괴롭힌 것은 사실은 은지와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은지는 알고 있을까.



찬다 삼촌

윤재인 글 | 오승민 그림 | 느림보 | 2012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나' 랑 아빠랑 둘이 사는 집에 외국인 찬다 삼촌이 들어와 셋이 살게 된다. 찬다 삼촌은 히말라야 출신으로 밥을 손으로 먹는다. 나는 찬다 삼촌이 떠날까 봐 염려하지만, 찬다 삼촌은 떠나지 않고 함께 살면서 내 머리를 감겨주기까지 한다. 이 그림책은 외국인 찬다 삼촌이 '나' 랑 아빠랑 한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정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하는 작품이다.



천사들의 행진

강무홍 글 | 최혜영 그림 | 양철북 | 2008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의사 야누슈 코르작은 환자 몇 명을 보살필 수는 있지만 폴란드에 버려진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병원을 떠나서 고아원을 운영한다.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에 아이들을 위한 인권을 이야기하고, 고아원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고 가꿀 수 있도록 어린이 법정을 만든다. 훗날 이 이야기는 UN 어린이 인권현장의 기초가 된다.



친구야, 난 네가 참 좋아

밀야 프라그만 글 · 그림 | 이태영 옮김 | 어린이나무생각 | 2009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친한 친구라면 꼭 똑같아야 할까? 나는 너와 아주 다른데도 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동그란 점무늬가 있는 무당 별레와 초록색 딱정벌레는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과 다른 개성이야말로 삶을 아름답고 다채롭게 만드는 것이다.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어봐!

신순재 글 | 장경혜 그림 | 창비 | 2010년 | 그림책 | 더불어 생명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평화 운동가 문정현 신부님은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를 잃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말씀하셨다.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어봐!>는 평화에 대한 수많은 정의 가운데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의 서식처이기도 한 땅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와 함께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 그들과의 공존, 바로 그 평화에 대한 그림책이다.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흙 한 자밤. 그 속에 10억 마리도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걸 아는지. 무심코 집어든 흙 한 줌에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단다. 그 많은 생명체들이 시끌벅적 움직이며, 사람들이 망가뜨린 것을 되돌려 놓으려 애쓰는 소리가 바로 지렁이 울음소리로 대표되는 땅의 소리인 것. 김용택 시인은 <지렁이 눈>이라는 시에서 지렁이는 “애들아들 애두루루애두루루애두루루.” 운다고 표현한 바 있다. 한 생물학 박사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는 250여 종의 지렁이가 있는데, 그 중 150여 종의 지렁이가 울음소리를 낸다고 한다. 또 다른 글에 따르면, 지렁이는 한여름 소나기가 쪽 내린 다음,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 찬, 해지기 전 오후 늦게, “지이이이잉— 지이잉 징.” 운다고 한다. 눈을 감고 땅의 소리를 들어 보시라. 지렁이가 쟁기질하고, 미생물이 써레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흙을 상징하는 듯, 노랑과 갈색이 주를 이룬 그림은 흙의 생명력을 표현하는데 손색이 없고, 톡토기, 자밤이, 지렁이로 대표되는 캐릭터는 책을 보는 재미를 더한다. 리듬감 넘치고 맛깔스런 글과 회화적인 그림이 어우러져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감동을 전하는 책이다.





크라신스키 광장의 고양이들

케런 헤스 글 | 웨니 웨슨 그림 | 유영중 옮김 | 별숲 | 2012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이야기의 무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거주 지역과 가까운 크라신스키 광장. 유대인 소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폴란드인처럼 행동하다가, 독일 비밀경찰의 눈을 피해 언니, 오빠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용기를 내어 고양이 여러 마리를 광장에 풀어놓는 소동을 벌여 고통당하는 이웃을 돋는다. 전쟁이 빚어내는 폭력과 두려움에 맞서서 싸우는 모습에 때로 슬프다가, 때로 긴장도 하다가, 유쾌하기도 했다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마음이 무척 따뜻해진다.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유다정 글 | 박재현 그림 | 미래아이 | 2008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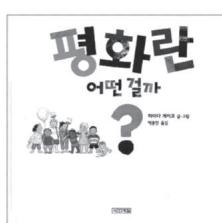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 공화국'에 사는 로자와 고양이 투발루. 로자는 왜 아름답고 평화로운 투발루를 떠나야 했을까? 왜 아빠는 로자의 애원에도 다음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까? 친구와 아빠와 이야기를 나눠보자. 고양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 아빠는 그날 비행기를 탈지 안 탈지 물어보자!



파란 티셔츠의 여행

비르기트 프라더 글 | 비르기트 안토니 그림 | 엄혜숙 옮김 | 담푸스 | 2009년 | 그림책 | 차별없는세상

인도의 어느 목화밭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그림책은, 목화가 옷이 되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보여준다. 나이가 티셔츠를 만드는 사람(생산자, 노동자)과 사는 사람(소비자)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 작품은 착취적인 아동 노동에 반대하고, 올바르고 정당한 생산과 소비를 주장하는데, 목화를 의인화한 기법을 통해 자칫하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재미있고 따스하게 풀어냈다.



평화란 어떤 걸까?

하마다 게이고 글 · 그림 | 사계절 | 2011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평화란 네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내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평화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배고픔을 주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누려가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림책. '평화'라는 어렵고 추상적인 단어를 어린아이들도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의 메시지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느님 물건을 파는 참새

이오덕 글김 | 김용철 그림 | 고인돌 | 2012년 | 그림책 | 함께 사는 세상

아침 일찍부터 참새들이 하느님의 물건을 판다. 이슬도 팔고 풀잎도 팔고, 나팔꽃도 팔고 하늘도 팔고, 봉어 새끼만한 구름 조각도 팔고, 온 세상에 내려앉는 고운 빛도 판다. 헬값으로 도매금으로 돈 없으면 그냥 가져가도 좋다고 한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아무개도 신이 나서 다 가져간다. 빛과 희망과 평화를, 기쁨과 노래와 웃음을, 아가의 마음을 한 아름씩 얹고 간다. 책 한가득 온정이 넘쳐난다.





함께 걷는 길

김서정 글 | 한성옥 그림 | 웅진주니어 | 2010년 | 그림책 | 차별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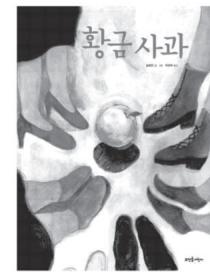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외국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 한국인과 외국인은 서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함께 걷는 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이 그림책은 함께 낙동강 걷는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화자인 이리나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다니는 아시아공동체학교의 면모를 알려준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외국어 수업이나 세계사 수업, 견우직녀나 사물놀이를 공연하는 다문화축제를 통해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돋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황금 사과

송희진 글 · 그림 | 이경혜 옮김 | 뜨인돌어린이 | 2010년 | 그림책 | 전쟁 없는 세상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은 황금사과가 열리는 나무를 동네 한가운데 두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운다. 자꾸만 담장을 높이 올리고 서로를 미워한다. 그러다 나중에는 싸우는 이유조차 잊어버린 채 마음의 담장도 한껏 쌓아올린다. 시간이 많이 흘러 어느 날, 한 꼬마가 우연히 담장 틈새로 건너편 마을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포래의 아이들이 살고 있어 깜짝 놀란다.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도 황금 '사과'이고, 기나긴 대립으로 생겨난 높은 담장을 뛰어넘어 소통의 계기를 만든 것도 여자아이 '사과'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6학년 1반 구덕천

허은순 글 | 곽정우 그림 | 현암사 | 2008년 | 동화 | 함께 사는 세상

실화를 모티브로 학교 내 폭력 문제, 특히 집단 따돌림의 심각한 현실을 그린 동화책이다. 작가는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상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현장감 있는 대사나 상황설정이 매우 사실적이라 가슴이 먹먹하다. 이 책은 나와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평범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른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다.



거짓말이 가득

오카 슈조 글 | 노석미 그림 | 고향 옮김 | 창비 | 2009년 | 동화 | 차별 없는 세상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류우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큰 거짓말을 하는 어른들에게 묻는다.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거짓말은 모두 안 좋은 거야?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짓말도 있잖아?” 거짓말 하는 어른들의 이중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권위와 관습을 유쾌하게 뒤집는 단편 동화가 가득하다.



고양이 학교

김진경 글 | 김재홍 그림 | 문학동네 | 2011년 | 동화 | 더불어 생명

프랑스 내 15만 명의 어린이·청소년들의 투표로 선정된 ‘앵코 러구브티블상’ 수상작. 자연과 인간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대칭적 세계관이 담긴 동북아 신화를 모티프로 쓰인 작품이다. 모든 생물 종과 자연의 적은 인간이라 여기고 인간의 멸망을 꾀하며 황금시대를 막으려는 그림자 고양이들,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정 고양이들과의 대결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생태학적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곰의 아이들

류화선 글 | 이윤희 그림 | 문학동네 | 2010년 | 동화 | 더불어 생명

단군신화 이야기 속에 숨은 뜻, 즉 ‘환웅을 필두로 한 천신을 믿는 부족이 곰을 토텁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텁으로 하는 부족을 통합하려 했다.’는 해석이『곰의 아이들』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청동기시대를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맺은 신성한 관계를 살펴보고, 서로 다른 신앙과 문화를 가진 부족 간의 갈등을 다루며 이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지 묵직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오래되고 가장 익숙한 신화 속에서 생명과 평화라는 가장 현재적인 질문을 끌어냈다.



기찻길 옆동네

김남중 글 | 류충렬 그림 | 창비 | 2004년 | 동화 | 전쟁 없는 세상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은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한 시대를 끗끗하게 살아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평화롭게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익산역 폭발사고와 광주 민중항쟁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평화롭게 조망할 수 있는 전망을 마련해준다.

낫짱이 간다

김송이 글 | 흥영우 그림 | 보리 | 2006년 | 동화 | 차별 없는 세상

재일 조선인 2세로 살아 온 작가 본인의 어린 시절 경험을 담은 동화다.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당하는 등 차별을 겪지만, 주인공 소녀 '낫짱'은 주눅 들지 않는다. 부당한 일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며, 자신의 일상을 즐겁게 만들며 살아가는 낫짱의 모습이 유쾌하게 그려졌다.



내 이름은 이순덕

공진하 글 | 최정인 그림 | 낫은산 | 2011년 | 동화 | 차별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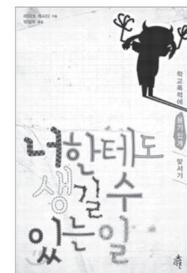
작가 공진하는 오랫동안 특수학교 교사로 지내 온 경험을 동화로 풀어낸다.『내 이름은 이순덕』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비정상 취급을 받고 있는 어린이가 등장한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던 주인공 순덕이는 자신을 긍정해주 는 할머니를 만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된다. 획일적인 기준과 성취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동화다.



너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

마이크 캐시디 글 | 이성우 옮김 | 다른 | 2012년 | 만화 | 함께 사는 세상

이 책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기 쉽도록 알려 준다. 아이들이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계점을 짚어주면서 학교 폭력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황금률을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용기 내어 말하기. 별책으로 수록된 '학교폭력 없는 평화학교 만들기'에는 학교폭력 대처법과 예방 활동을 매뉴얼로 실었다. 이 책은 아이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준다.



니코 오빠의 비밀

알키 지 글 | 마상용 그림 | 최선경 옮김 | 창비 | 2001년 | 전쟁 없는 세상

정치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치로 인해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던 멜리사 가족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보여주며 정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한다. 1936년 그리스에서 독재 정치가 시작되던 무렵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대추리 아이들

김정희 글 | 흥정선 그림 | 사계절 | 2009년 | 동화 | 전쟁 없는 세상

“나는 아직도 열두 살 적에 뛰놀던 내 고향 들판으로 돌아가는 꿈을 꾼단다.”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곳, 대추리. 집들은 부서졌고, 농사짓던 들판엔 철조망이 쳐졌다. 그래도 한 솔 이는 내 고향 들판으로 돌아가는 꿈을 꾼다. 대추리의 들판을 가꾸었던 할아버지와 마을을 지키려고 했던 아버지의 시간을 꿈꾼다. 대추리의 솔부엉이는 얼마나 많은 밤을 꿈꿔 야 날아오를까?





돌고래 파치노

정도상 글 | 오윤화 그림 | 문학동네 | 2006년 | 동화 | 전쟁 없는 세상

돌고래는 1960년대 베트남 전쟁과 제1차 걸프전 때 작전을 수행하는 병기로 투입되었다고 한다. 인간들의 전쟁에 이용하기 위해 훈련받은 돌고래를 통해 반전과 동물학대에 관해 생각하게 하는 동화이다. ‘돌고래답게 살고 싶다’는 돌고래의 꿈은 참혹한 전쟁과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뚱 줌 오 줌

김영주 글 | 고경숙 그림 | 재미마주 | 2002년 | 동화 | 차별 없는 세상

선생님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교실에서 어린이들은 재미있지도 않고 평화를 경험할 수도 없다. 선생님이 사라져도 반장이 남아서 그 권력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교실을 재미있게 뒤바꿀 수는 없을까? 숨 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한 교실을 빨랄한 상상력으로 유쾌하게 뒤집는 이야기가 신선하다.



똑똑똑딱 인권짓기 1–나도 권리가 있어!

인권교육센터 ‘들’ 글 | 윤정주 그림 | 책읽는곰 | 2011년 | 만화 | 차별 없는 세상

어린이 잡지『고래가 그랬어』에 연재되었다가 2005년에 『똑똑똑딱 인권짓기』로 출간되었던 것을 재개정하여 새롭게 펴낸 책이다. 인권교육은 권리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라는 취지로 어린이가 인권에 대해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1권『나도 권리가 있어!』는 차별, 표현의 자유, 생활권, 쉬고 놀 권리, 교육, 건강과 안전, 폭력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똑똑똑딱 인권짓기 2–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인권교육센터 ‘들’ 글 | 윤정주 그림 | 책읽는곰 | 2012년 | 만화 | 차별 없는 세상

인권을 아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인권을 위해 ‘행동’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사회가 사람을 돌보는 사회 복지 권리, 작게 낮게 느리게 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진다. 오랫동안 인권운동, 인권교육운동을 해 온 활동가들의 고민과 이야기가 섬세하게 담겨 있다.



로봇의 별 1~3

이현 글 | 오승민 그림 | 푸른숲주니어 | 2010년 | 동화 | 차별 없는 세상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과감한 모험을 펼치는 본격 SF동화다. 로봇이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없애고 평화로운 ‘로봇의 별’을 만든다는 이야기다. 로봇의 자유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져 알파와 텔타 계급은 하늘 도시에 살고, 가난한 계급은 질병과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는 미래사회에 대한 묘사는 현재 우리 사회를 닮았다.

맨홀장군 한새

김우경 글 | 오승민 그림 | 문학과지성사 | 2012년 | 동화 | 더불어 생명

김우경은 널리 알려진 『머피와 두칠이』, 『수일이와 수일이』 외에도 등단 초기부터 자연과 목숨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인간 문명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작가였다.

『맨홀장군 한새』는 저자의 이런 고민이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난 작품이다. 문제아로 낙인 찍혀있던 한새가 돈을 훔쳐 도망간다 맨홀에 빠지게 되고 강아지만큼 큰 쥐로부터 동물들 회의에 인간 대표로 참석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 세계 여행을 하며 한새는 여러 동물로부터 인간이 동물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그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악행들을 알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한새는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모든 목숨들이며 인간은 그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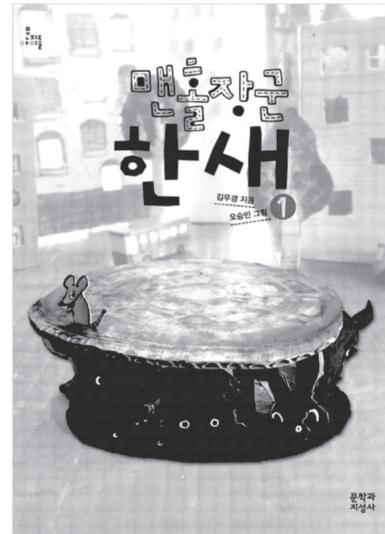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분법적 시각으로 선명하게 구별되고 대립되지 않는다. 한새의 중성적 캐릭터, 실험용 쥐였다가 라면 찌꺼기와 함께 변기에 버려진 사연 때문에 인간을 중요해야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강아지 같이 큰 쥐, '투팍 아마루'의 철학을 입에 달고 있는 '라마' 등의 등장인물은 인간은 나쁘고 자연은 선하다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다. 환경 생태 문제를 다루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동화' 들은 이분법적 세계관에 간혀 인간을 질책하는 것에 그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은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대립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마가 떠들어대는 투팍이 독특한 존재이다. 투팍 아마루는 잉카말로 '빛나는 뱀' 이란 뜻인데 그 이름에는 매우 슬프고도 깊은 역사가 있다. 투팍 아마루는 스페인에게 점령당한 잉카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다. 200여 년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페루에서 18세기 후반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강기란 사람이 잉카제국의 마지막 황제 투팍 아마루 후손으로 주장하며 자신을 이름을 '투팍 아마루 2세'로 바꾸고 잉카 왕국의 재건을 선언했다.

투팍의 잉카 제국 부흥 운동은 결국 실패하고 자식과 아내가 눈앞에서 사형 당하는 것을 목도한 뒤 서른아홉의 나이에 비장한 죄후를 맞이했지만, 그의 격정에 찬 삶과 혁명 정신은 계속 이어진다. 20세기 미제국주의자들과의 항전과 관련된 라틴 아메리카 민중 혁명 운동은 '투팍'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정권에 반발하여 원주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혁명운동을 꾀한 테러리스트 단체의 이름 역시 투팍 아마루였다. 이렇게 투팍 아마루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을 상징하는 이름으로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그는 죽어서 콘도르가 되었다는 전설을 얻었다.

김우경은 투팍의 삶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에 맞선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들의 삶과 투쟁에서 자연과 인간 문명의 대립을 넘어서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일까?

2009년 지병으로 저 세상으로 가신 작가는 이 작품을 우리에게 유작으로 남겼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리언이야기

리언 월터 틸리지, 수잔 엘 로스 글 | 배경내 옮김 | 바람의 아이들 | 2006년 | 논픽션 | 차별 없는 세상
1950,60년대 미국은 흑백분리 정책을 통해 흑인을 일상적으로 차별했다. 흑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을 만들어 놓고 백인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관리인으로 일한 리언 할아버지가 흑인으로 살면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을 아이들에게 들려준 것을 재구성했다. 오랫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한 리언의 삶이 마음 아프게 전해진다.



무기 팔지 마세요!

위기철 글 | 이희재 그림 | 청년사 | 2002년 | 전쟁 없는 세상

이 책은 수많은 물음들로 그득하다. 하지만 쉽게 아이들에게 답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 책은 '전쟁놀이가 나쁘다'라는 명제에 대한 논증이 아니라 "자각하라, 자각한 만큼 행동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네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닐까 싶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다 보면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 을 보여준다.



밥데기 죽데기

권정생 글 | 박지훈 그림 | 바오로딸 | 2004년 | 동화 | 전쟁 없는 세상

솔미골 깊은 골짜기에서 혼자 사는 늑대 할머니는 어느 날 장에 가 계란 두 개를 사오고, 그 계란으로 사내아이 두 명을 탄생 시킨다. 늑대 할머니와 달걀 귀신인 밥데기, 죽데기라는 사랑스런 주인공들 셋이 마음을 합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린이에게 어려운 통일의 문제가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해결된다. 만화영화를 보듯 깔깔거리며 읽을 수 있지만 감동의 울림은 깊은 작품이다.



봉주르, 뚜르

한운섭 글 | 김진화 그림 | 문학동네 | 2010년 | 동화 | 전쟁 없는 세상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에 살면서도 분단이나 통일에 무감각하다. 분단이 내 책임 아니듯 통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데 프랑스 지방 도시로 이사 간 열두 살 소년 봉주는 비밀에 싸인 일본 소년 토시와 얹히며 뜻밖에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마주한다. 반공주의와 민족주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두 소년의 짧은 인연이 애틋하다.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김종미 외 글 | 윤정주 그림 | 창비 | 2004년 | 동화 | 차별 없는 세상

우리에게 이방인이란 어떤 존재일까? 그것도 가난한 이방인이라면? 한국 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과 착취에 시달린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산업재해로 집게손가락을 잃은 블루시아 아저씨를 위해 착상해 낸 가위 바위 보는, 가위를 뺀 바위 보라는 새로운 게임이다. 상처 입은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비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

수요일의 괴물

다니엘르 시마르 글 | 이정주 그림 | 개암나무 | 2009년 | 동화 | 함께 사는 세상

『수요일의 괴물』은 짹꿍의 괴롭힘을 소재로 한 책이다. 짹꿍과의 갈등은 학창시절 누구나 한번쯤 겪어 봤을 법한 이야기다. 그런데 ‘수요일의 괴물’이라니 제목부터 범상치 않다. 이 책은 어린 시절 작가의 친한 친구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동화로 쓴 작품이다. 작가는 친구에게 당하는 줄리앙의 심리를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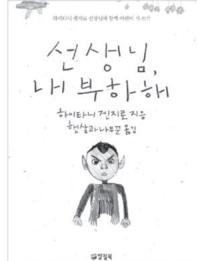
주인공 줄리앙은 반에서 시험을 치는 수요일이 되면 짹 말레트의 협박 때문에 괴롭다. 말레트가 줄리앙에게 자신의 답을 고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모범생 줄리앙이 덩치 크고 성격이 사나운 말레트와 짹이 된 건 담임선생님이 제안한 ‘환상의 짹꿍’ 게임 때문이다. ‘환상의 짹꿍’은 우수한 학생과 뒤처지는 학생을 짹 지워 함께 도우며 공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선생님의 의도와 다르게 훌러간다. 줄리앙에게 ‘환상의 짹꿍’은 ‘최악의 짹꿍’이 되었다.

줄리앙은 누군가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알아주길 바라지만, 누구에게도 알릴 수가 없다. 친구의 협박 때문이지만 시험지의 답을 고친 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선생님과 엄마, 친구들,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다. 그런데 줄리앙이 입을 다물수록 사태는 점점 고여만 간다. 말레트에게 대항할 힘도 없고, 선생님과 엄마에게 진실을 얘기할 용기도 없는 줄리앙에게 교실은 그야말로 지옥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난 마치 지렁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디에도 숨을 구멍이 없는 지렁이요....내 눈에서 진실을 읽을까봐 겁이 났어요.”라고 말하는 줄리앙의 독백이 가슴 찡하다. 이 책의 매력은 어두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겁거나 지루하지 않다는데 있다. 작가가 설정한 과장된 인물과 유머러스한 일러스트가 이야기를 유쾌하고 발랄하게 이끌기 때문이다. 줄리앙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사건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린다. 과연 해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짹꿍의 괴롭힘에 힘없이 당하는 줄리앙과 그것을 이겨내는 친구의 친혜를 통해 어린 독자에게 공감과 재미를 준다.





선생님, 내 부하해

하이타니 겐지로 글 | 헛살과나무꾼 옮김 | 양철북 | 2009년 | 논픽션 | 차별 없는 세상

“당신은 그 시절에 어른에게 불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없었던 건 용기였겠죠” 교사였던 하이타니겐지로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불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써 보라고 격려 한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자유와 평화가 꽂피는 것이 아닐까. 작가가 17년 동안 글쓰기를 가르치며 얻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글들이 싱그럽다.



숨쉬는 도시 꾸리찌바

안순혜 글 | 박혜선 그림 | 파란자전거 | 2004년 | 논픽션 | 더불어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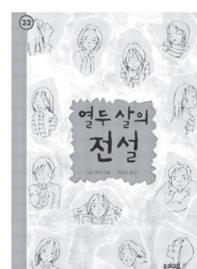
꾸리찌바는 브라질에 실제로 있는 계획도시로서 유엔이 선정한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환경도시’이며, 타임지 선정 ‘지구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곳이다. 가상의 주인공 환이의 꾸리찌바 여행 이야기를 통해 폐품과 음식물을 교환하는 ‘녹색 교환’ 프로그램과 ‘쓰레기 트럭’, 스스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나뭇잎 가족 캠페인’ 등을 경험하게 된다. 생태적으로 올바른 도시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양파의 왕따 일기

문선아 글 | 주니어 파랑새 | 2001년 | 동화 | 함께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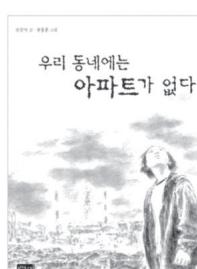
『양파의 왕따 일기』는 초등생들의 왕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우리 동화로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작품이다. 이 책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초등생 눈높이에서 왕따의 문제점을 아주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유치한 의식을 치루고, 다른 아이들을 배척한다. 친구의 횡포에도 아무 말 못하고 당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의 상처를 엿볼 수 있다. 해피엔딩을 위해 인물들을 선별로 화해시키지 않은 결론이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더 많이 남겨준다.



열두 살의 전설

고토 류지 글 | 박종진 옮김 | 우리교육 | 2003년 | 동화 | 함께 사는 세상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등교거부, 학급 붕괴, 집단 따돌림의 문제를 열두 살 어린이들의 이야기로 쓴 일본 동화다. 작가는 정말 대책이 없을 것 같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약하고 따뜻한 감성을 찾아낸다. 새로 부임한 모리 미도리 선생님이 담임을 맡으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교실 속 모습이 인상적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보고 싶은 것은 희망이다. 성숙한 어른들의 역할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가 없다

김종미 글 | 유통훈 그림 | 별천지 | 2010년 | 동화 | 차별 없는 세상

우리 동네가 없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그대로 있는 것, 우리 집이 여기에 계속 있는 것, 그것이 내 바람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의 소망이다. 골목골목 곳곳에 삶이 짓들어 있는 동네를 모두 철거해 버리고 새집을 짓겠다는 것은 폭력이다. 단지, 집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꿈과 소망을 앗아가는 일이다.



우리누나

오카 슈조 글|카미야 신 그림|김난주 옮김|웅진주니어|2002년|동화|차별 없는 세상

오랫동안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해 온 오카 슈조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뒤집는 동화를 여러 편 썼다.『우리누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둘러싼 일상의 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포착하여 보여주는 단편 동화 여러 편을 묶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동정적인 시선을 거부하고, 장애에 대한 낯선 감각을 통해 폭넓은 인간적인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돋는다.



우리는 편볼이 아니다

베치 바이어스 글 | 김영옥 옮김 | 사계절 | 2010년 | 동화 | 차별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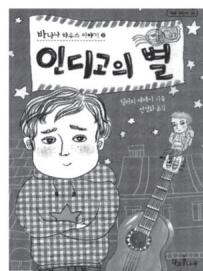
어린이 셋이 위탁 가정에 모였다. 이 세 어린이들에게 집은 바깥 어느 공간 보다 폭력적인 곳이다. 불안정하고 미숙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사과하지 않는다. 구석에 내몰린 어린이들이 외친다. 우리는 어른들이 떠미는 대로 쓰러지는 '편볼'이 아니다! 우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전솔하게 그려졌다.



인디고의 별

힐러리 매케인 글 | 전경화 옮김 | 책과통나무 | 2010년 | 동화 | 함께 사는 세상

『인디고의 별』은 바나나 하우스를 배경으로 한 다섯 이야기 중 두 번째 이야기이다. 바나나 하우스 1권에서는 입양 문제를 별랄하게 다루었고, 2권에서는 학교 내 왕따 문제를 다루었다. 작가는 개성이 다른 가족이 모여 사는 바나나하우스의 모습을 통해 입양과 왕따, 부모의 이혼 등에 관한 문제들을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쳐 해결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사춘기에 막 들어서는 초등고학년부터 중학생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자존심

김남중 글 | 이형진 그림 | 창비 | 2006년 | 동화 | 더불어 생명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살아있는 동물을 기계나 인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같은 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 하지만 동물들도 자존심을 지키며 나름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책은 동물들의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들로서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준다.



전쟁과 소년

윤정모 글 | 김종도 그림 | 푸른나무 | 2003년 | 동화 | 전쟁 없는 세상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린이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다. 50여 년 전 우리나라로 비참한 전쟁을 겪었다는 것, 그것은 결코 게임이 아니며 그 장면들 또한 정대로 가상이 아니라는 것, 전쟁 3년간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참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짜장 짬뽕 탕수육

김영주 글 | 고경숙 그림 | 재미마주 | 1999년 | 동화 | 함께 사는 세상

'짜장, 짬뽕, 탕수육?' 한번 보면 잊혀 지지 않은 책 제목이다. 작가는 전학 온 아이의 왕따 문제를 제목만큼이나 발랄하게 그려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아이들의 기싸움을 엿볼 수 있다. 아주 짧고 단순한 이야기인데 아이들 세계에 존재하는 미묘한 감정대립이 그럴 듯하게 잘 쓰여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책이다. 이 책에서 돋보이는 것은 재치 있고 당당한 주인공 종민이의 캐릭터이다. 나약함을 통해 동정심을 자아내는 작품들과 달리 스스로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인상적이다.



참 좋다 통일 세상

임수경 글 | 박재동 그림 | 황소걸음 | 2003년 | 논픽션 | 전쟁 없는 세상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책 속에 펼쳐 놓는다. 북한 사람들은 왜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는지, 북한도 통일을 원하는지, 통일을 하면 어떤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로 해야 하는지, 통일을 하면 우리가 견난해지는 것은 아닌지, 통일 후엔 무엇이 달라지는지 등 어린이들이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의문들을 친절하게 해소시켜 주며, 북한의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들에 대해 소개해주고, 앞으로 다가 올 통일을 준비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최기봉을 찾아라

김선정 글 | 이영림 그림 | 푸른책들 | 2011년 | 동화 | 차별 없는 세상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유쾌하게 풀어낸 책이다. 학생들은 불만이다.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교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참잘했어요, 못했어요 도장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의 도장이 사라진다. 잃어버린 도장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는 어린이 입장에서 서는 과정을 겪는다. 교사와 학생간의 평화로운 소통을 꿈꿔보는 빌랄한 동화다.



최열 아저씨의 푸른 지구 만들기 세트

최열 글 | 최병옥, 박은식 그림 | 청년사 | 2008년 | 논픽션 | 더불어 생명

한국의 살아있는 환경운동의 역사라 할 수 있는 환경운동가 최열이 쓴 어린이를 위한 환경책 시리즈이다. 「뒤룩뒤룩 간질간질」, 「찰랑찰랑 출렁출렁」, 「반달곰아 수달아」, 「에취에취 콜록콜록」, 「꼬질꼬질 구리구리」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먹을거리, 쓰레기,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생태계 등의 문제가 총 망라되어 있다. 어린이를 위한 환경 백과사전이라 할만하다.



침팬지를 사랑한 동물학자 제인 구달

서경석 글 | 김형배 그림 | 사회평론 | 2002년 | 만화 | 더불어 생명

40년의 세월동안 침팬지와 함께 한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일대기를 다룬 만화이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사랑하던 제인은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다. 인류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더 정확하고 편견에 얹매이지 않는 실험을 위해 침팬지 무리를 찾아 숲으로 떠나 침팬지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이 책은 제인 구달의 진정한 동물 사랑과 환경 운동을 통해 그칠 줄 모르는 인류애와 자연애를 가르쳐준다.



캄펑의 개구쟁이 1~2

라트 글 그림 | 박인하, 흥윤표 옮김 | 꿈틀 | 2008년 | 만화 | 차별 없는 세상

캄펑의 개구쟁이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낯선 말레이시아의 시골 마을이 무대다. 주인공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슬람 문화도 전혀 낯설지만은 않다. 울창한 열대우림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시골 마을의 따뜻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2부에서는 우리의 전래놀이와 닮은 말레이시아 전통놀이도 재미있게 엿볼 수 있다.



평화는 힘이 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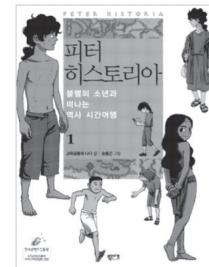
로라 자페, 로르 생마크 글 | 레지 팔러 외 그림 | 장석훈 옮김 | 푸른숲주니어 | 2002년 | 자식정보 | 함께 사는 세상
이 책은 <세계 어린이와 함께 배우는 시민 학교> 첫 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하거나 저지르는 작은 폭력과 우리 주변의 폭력적 상황들, 그런 폭력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폭력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결국 폭력을 이야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것은 평화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이 책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피터히스토리아 1,2

교육공동체 나다 글|송동근 그림|북인더갭|2011년|만화|차별 없는 세상

역사는 암기가 아니다. 역사가 어떤 힘에 의해 변화되고 움직여 왔는지 그 역동성 속으로 들어가 보며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고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주인공 피터는 마법의 힘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아이가 되어 세계사를 탐험한다. 노예, 원주민, 노동하는 어린이, 혁명과 저항운동 같은 사건을 경험하며 평화와 평등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청소년



20년간의 수요일

윤미향 글 | 웅진주니어 | 2010년 | 비소설 | 전쟁 없는 세상

우리에게 수요일은 어떤 의미일까? 지난 20년간 한자리에서 수요일을 맞고 보낸 사람들이 있다.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 모였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자신에게는 힘겨운 역사이지만, 결코 후세에는 남겨줄 수 없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싸워온 20년. 지금도 여전히 할머니들은 수요일마다 같은 자리에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26년

강풀 글 그림 | 재미주의 | 2012년 | 만화 | 전쟁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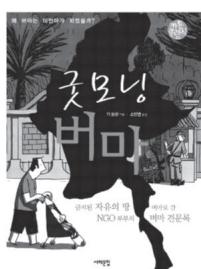
2006년 어느 날 사격선수, 조각가, 건달, 경찰관, 교사 등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 앞에 나타난 굴지의 기업 회장은 26년 전 80년 5월 광주의 기억을 고통스레 끼내놓는다. 그들은 모두 80년 광주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출발점이 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우리의 흐린 기억을 깨우는 한 발의 총성이 울린다.



4.19혁명

윤석연 글 | 소복이 그림 | 한겨레틴틴 | 2010년 | 비소설 | 전쟁 없는 세상

나의 하루는 역사와 어떻게 만날까? 훗날 모든 이들이 역사라고 부르는 그 현장에서 하루를 보낸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 정치지도자부터 초등학교 학생까지 1960년 4월, 혁명의 공간에서 각자 주인공으로 보낸 하루를 이야기로 엮었다. 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만나고, 서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연처럼 읽히는 과정을 보여준다.



굿모닝 베마

기들릴 글 | 소민영 옮김 | 서해문집 | 2010년 | 만화 | 전쟁 없는 세상

2차 세계대전 직전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일본군에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독립 후에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며, 1988년 민중항쟁을 일으켜 직접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 나라. 군부 정권이 멧대로 미안마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지만, 군부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베마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 책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는 아내를 따라 베마에 간 캐나다인 만화가의 위험하고 가슴 시린 베마 견문록이다.

그래도 죽지마

시본 도우드 글 | 서른 옮김 | 생각과 느낌 | 2010년 | 소설 | 전쟁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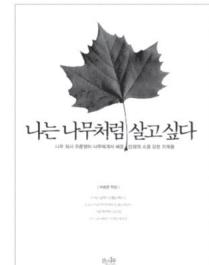
분단의 역사와 식민지의 기억과 함께 하는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점이 많다. 몸은 북아일랜드에 있지만 정신은 아일랜드 공화국에 있는 청소년 '퍼거스'를 중심으로 북아일랜드 분쟁에 대해 이야기한다. 청소년이 겪는 개인적 갈등을 역사적 갈등과 연결시켜, 개인에게 강요된 희생과 그것에 굴하지 않은 영혼의 힘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청소년이 가족과 민족,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나가도록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책이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우종영 글 | 걷는나무 | 2009년 | 논픽션 | 더불어 생명

25년 동안 나무를 돌보며 살아온 나무 의사가 나무에게서 배운 지혜와 깨달음, 나무처럼 살고 싶은 마음 등을 솔직하게 담은 책이다. 아픈 나무를 돌보며 삶을 반추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잊고 지낸,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다양한 나무에게서 발견해 들려준다. 여기에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무관심하게 여겨 지던 나무와 다시 친구가 되어 녹색 빛 여유로움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난 그것만 생각해

카림 르수니 드미뉴글 | 꽉이경 해제 | 조승연 그림 | 김혜영 옮김 | 검동소 | 2011년 | 소설 | 차별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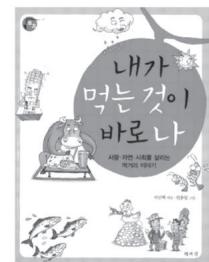
우리사회는 성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와 편견에 가득 찬 폭력을 휘두른다. 열다섯 살 주인공 소년은 이웃에 사는 학교 선생님이 레즈비언이라고 사람들에게 아웃팅 한 '가해자' 이자, 친구들 사이에 동성애자라고 오해를 받으며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곤란을 동시에 겪는다. 그 과정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나는 누구일까"의 질문을 찾아가는 '반짝이는' 삶을 얻는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허남혁 글 | 김종엽 그림 | 책세상 | 2008년 | 논픽션 | 더불어 생명

다양한 먹거리의 가치와 관계망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우리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인이 먹거리의 종체적 관계망을 고민하고 탐색한 책으로서, 먹거리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먹거리 생산자들의 생계와 공동체 유지, 환경 보전, 국민 건강과 같은 문제들 역시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내지 먹거리의 사회학, 먹거리의 생태학을 제시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변천 과정을 추적하며, 과학기술이 가져온 변화와 관련해 광우병이나 GMO 같은 사회적 쟁점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고찰한다.



내가 살던 용산

유승하 외 저음 | 보리 | 2010년 | 만화 | 차별 없는 세상

2009년 1월 20일, 용산 철거민 다섯 분이 강제진압 과정 끝에 목숨을 잃었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 기억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희망이 시작된다. 이런 취지로 만화가 여섯 명이 유족을 만나 죽음에 이르기 까지 고인이 살아온 흔적을 인터뷰하여 만화로 그려냈다.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절실한 삶의 이 유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너는 나다

하종강 외 글 | 레디앙 | 후마니타스 | 삶이보이는창 | 철수와영희 | 2010년 | 논픽션 | 차별 없는 세상
기껏해야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거였다. 큰 욕심 없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였다. 40년 전 온몸을 불살랐던 한 청년의 외침은 소박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청년의 꿈은 이뤄진 걸까? 일터에서, 학교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수많은 전태일. 그들이 꾃꿋하게 살아남는 한, 평화시장 재봉공장 재봉사 전태일도 살아 있다.



도와줘 제발

엘리자베트 콜러 글 | 임정희 옮김 | 주니어김영사 | 2009년 | 소설 | 함께 사는 세상
작가인 엘리자베스 콜러는 교사 출신으로 폭력에 저항하는 글들을 주로 썼다.『도와줘, 제발』은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접했던 경험을 토대로 학교 폭력의 실상을 그린 작품이다. 제목과 표지에서부터 절박한 감정이 묻어나오는 이 작품은 주인공 니코의 심리 변화 과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오가는 아이들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폭력의 희생자가 다시 폭력의 주체로 바뀔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가슴 아프다.



방관자

제임스 프렐러 글 | 김상우 옮김 | 미래인 | 2012년 | 소설 | 함께 사는 세상
『방관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를 경험한 아이의 시선으로 학교폭력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작가는 '방관자'가 된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을 지극히 현실적인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처음엔 내 일이 아니라며 방관하던 에릭은 자신이 피해자가 되면서 사태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용기를 내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괴롭힘에 무관심 하지 않고, 당당한 아이들로 길러낼 의무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 글 | 창비 | 2010년 | 논픽션 | 차별 없는 세상
인권이 던지는 질문은 '불편'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도전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통해 '불편한' 이야기들이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인권과 만날 수 있도록 돋는다. 새로운 질문은 불편하다. 하지만 우리를 좀더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빵과 장미

캐서린 패티슨 지음 | 우달임 옮김 | 문학동네 | 2010년 | 소설 | 차별 없는 세상
19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로렌스에서 일어난 파업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민 노동자 가정의 소녀와 부랑자 소년의 시선을 통해 파업 현장을 생생하게 그렸다. '빵과 장미'는 그 당시 나온 구호인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빵이 필요하지만 장미 또한 원한다는 의미다.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투쟁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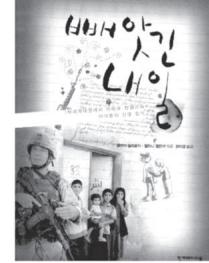




빼앗간 내일

줄라타 필리포빅 외 글 | 정미영 옮김 | 한겨레 아이들 | 2008년 | 논픽션 | 전쟁 없는 세상

1,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베트남 전쟁, 보스니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틴 분쟁, 이라크 전쟁을 겪은 각기 다른 나라의 8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쓴 전쟁일기이다.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매일 같은 질문을 한다. ‘내일도 과연 살아 있을까?’ 전쟁이 앗아간 아이들의 내일, 그 하루의 절박함과 소중함을 상상해보자.



생태요괴전

우석훈 글 | 개마고원 | 2009년 | 논픽션 | 더불어 생명

『88만원 세대』로 유명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상한 존재들을 하나하나 파헤친다. 이 책에서 만날 요괴들은 크게 보아 두 종류, 즉 ‘세계의 메이저급 요괴들’과 ‘한국의 개발요괴’로 나뉜다. 대기업과 이윤이라는 가치는 흡혈귀로, 자신을 창조해준 인간을 죽이고 스스로 북극으로 사라져간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침단 과학기술이 빛어낼 끔찍한 사태의 은유로 바라본다.



소금꽃나무

김진숙 글 | 후마니타스 | 2007년 | 논픽션 | 차별 없는 세상

소금꽃나무는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흔적을 상징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왜 쉽게 버려지고, 생존권 위협 속에 놓여야 하는가. 저자 김진숙은 2011년 1월 6일부터 85호 크레인 위에서 309일동안 고공농성을 펼쳤다. 살얼음판 끝에서 노동자 연대를 외쳤고, 그 울음에 많은 이들이 함께 했다. 그가 전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것은 평화를 위한 연대의 시작일 수도 있다.



손톱이 자라날 때

방미진 글 | 문학동네 | 2010년 | 소설 | 함께 사는 세상

『손톱이 자라날 때』는 십대의 불안한 자의식과 공포를 다섯 편의 이야기에 담고 있다. 자신보다 잘난 반 친구에 대한 질투, 부모에 대한 불만, 따돌림, 가난, 외로움, 이 속에서 피어나는 증오심과 불안이 공포가 느낄 정도로 섬세하고 섬뜩하게 그려져 있다. 작가는 청소년 문학에서 보기 드물게 청소년기의 불안함과 우울, 삶에 대한 고민들을 미스터리 호러에 접목시켰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십대들의 진혹한 외로움이 처절하게 느껴진다.



신과 함께 : 저승편, 이승편

주호민 지음 | 애니북스 | 2010, 2011년 | 만화 | 차별 없는 세상

한국 전통신화에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 현대 우리 사회의 고통을 재치 있게 다뤘다. 저승 세계 재판 과정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한다. 결코 가볍지 않은 군의문사 문제, 재개발 문제를 다루는 등 현실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을 놓치고 있지 않은 문제작이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박영희 글 | 삶이보이는창 | 2007년 | 논픽션 | 차별 없는 세상

시인 박영희가 소외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고물을 주워 생계를 꾸리는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덤프트럭과 퀵서비스 기사, 일용직 노동자, 쪽방촌으로 떠밀려난 도시 서민 등 소외된 이들이 겪은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체험한 기록이라 가슴 깊이 절절하게 다가온다.



열일곱 살의 텔

김해원 글 | 사계절 | 2008년 | 소설 | 차별 없는 세상

이발사 할아버지 덕에 '모범 머리'를 하고 다니던 일호는 체육 선생이 두발 규정을 어긴 아이의 머리에 라이터를 들이대는 것을 보고 두발규제 반대 시위에 나서게 된다. 이 싸움에는 뜻밖에도 할아버지가 함께해, 훗날 학생들이 '별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유머스하고 통쾌한 결말을 맺는다. 두발 규제를 둘러싼 청소년 인권 문제를 제기한 소설로 의미가 있다.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글 | 양희승 옮김 | 중앙북스 | 2007년 | 논픽션 | 더불어 생명

서구세계와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라다크 마을 사람들을 통해 사회와 지구 전체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저자는 20년간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다크에 머물면서, 급속한 현대화에 직면한 가운데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생태적 보전을 유지하려는 라다크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 책을 통해 서구식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개발의 폐해를 확인하며 오늘날의 환경과 사회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글 | 유영미 옮김 | 갈라파고스 | 2007년 | 논픽션 | 차별 없는 세상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곡물만으로도 전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프랑스의 곡물 생산만으로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과잉의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다. 부자들의 쓰레기로 연명하는 사람들, 소는 배불리 먹고 사람은 굶는 현실, 사막화와 삼림 파괴의 영향, 도시화와 식민지 정책의 영향, 특히 가진자의 이익에 철저히 봉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등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원인을 조목조목 파헤치고 있다.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글 | 창작과비평사 | 2009년 | 소설 | 함께 사는 세상

청소년 소설의 뷰를 일으키고 영화화된『완득이』의 작가 김려령의 작품이다.『우아한 거짓말』은 사춘기 소녀 천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무엇이 그 소녀를 죽게 했는가? 그 갑작진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추리소설처럼 엮인 소설이다.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가는 듯 한 구성과 복선, 절제된 대사와 서술이 독자를 끌어당기고, 굴절된 인간관계와 심리가 가슴을 치게 한다.

우리들의 7일 전쟁

소다 오사무 글 | 고향 옮김 | 양철북 | 2011년 | 소설 | 차별 없는 세상

“누구의 명령도 아니에요. 중학교에 들어온 지 네 달이 지났어요. 규칙과 명령은 진짜 지긋지긋하다고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명령받지 않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방구예요.”

해방구는 1960년대 말 일본 학생운동 조직 ‘전공투’의 상징적인 공간을 부르는 말이다. 평화와 민주화의 깃발을 들고 뜨거운 가슴을 바쳤던 그들! 그들이 부모가 된 1980년대가 이 소설의 배경이다. 그리고 해방구 운동을 펼쳤던 이들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항해 전쟁을 선포한다. “그래 아이는 어른의 꾸두각시가 아니야. 자기들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지. 그걸 똑똑히 알게 해주겠어.” 어른 권력에 반기를 든 해방구! 1960년대 해방구가 1980년대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

『우리들의 7일 전쟁』은 1985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청소년과 어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사랑받고 있다고 한다. 재기 발랄한 문체와 속도감 있는 전개가 읽는 재미를 선사하면서도, 결코 녹녹치 않은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책에 등장하는 중학교1학년 스물한명은 해적 라디오 방송을 통해 권위적인 어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해방구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만든 민주적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이 ‘좌파세력’에 물들었다며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온 힘을 쓰지만, 그 과정에서 어른들이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를 극적으로 들어날 뿐이다. 저자의 교육에 대한 철학, 사회비판적 감각이 계몽적인 훈계가 아니라 즐겁고 통쾌하게 간지러운 곳을 짚어 시원하게 밝혀내주고 있다.

역시 ‘해방구’는 “청소년, 학생 역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와 권리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훌륭한 장치다. 해방구까지 문제집을 들고 와서 올려다 줄 테니 공부하라는 어른들에게 무슨 말이 통하랴. 아무리 말하고 외쳐도 보지도 듣지도 않으니, 결국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해방구는 어른들이 만든 규칙과 명령이 아니라, 청소년 역시 지기 자신의 소망과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약 7일간의 꿈같은 시간 이후 청소년들은 공장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해방구를 잊었지만 슬프지 않다. “아아. 해방구~ 안녕!”이라고 “더는 크게 소리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소리친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난다. 건물로서 해방구는 ‘어른’들에게 점령당했지만, 짧지만 강렬하게 그들 가슴 속에 남은 ‘해방구의 경험’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어떤 것이 되어 있다. 어른들에 대한 ‘해방’ 이기도 하지만, 나를 억누르고 있던 편견과 좁은 틀에서 벗어나는 ‘해방’ 이가도 했으니까, 스물한명의 주인공들은 좀 더 자유롭게 멀리 힘차게 뛰어오를 것이다.





유진과 유진

이금이 글 | 푸른책들 | 2004년 | 소설 | 함께 사는 세상

아동성폭력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청소년 소설이다. 한 아이는 기억을 봉합해 상처를 덮어버렸고, 한 아이는 상처를 드러내 더욱 단단해졌다. 작가는 사건 후 서로 다른 과정을 겪은 두 소녀를 교차하여 청소년들의 일상과 감성을 세심하게 그리고 있다. 상처는 덮어둔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그러나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않는 상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성찰하게 한다.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학생생활연구회 글 | 양철복 | 2009년 | 소설 | 함께 사는 세상

'파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들이 8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함께 연구하고 4년간 집필한 책이다.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재구성한 책이기에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파돌림, 센 척, 권력 다툼 등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때론 실패하고 때론 성공하며 얻은 좌충우돌 학교폭력 평정기. 이 책을 읽고 나면 학교 폭력에 관한 권력관계와 아이들의 행동 양식이 뚜렷하게 그려진다. 학교 폭력에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 보시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희망을 찾게 된다.



인권, 교문을 넘다

인권교육센터 '들' 글 | 한겨레에듀 | 2011년 | 논픽션 | 차별 없는 세상

학생인권은 '나중에'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지금 이곳에서 인권을 경험할 수 없다면, 나중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인권을 만날 수 없다. 이 책은 지금껏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었던 학생인권을 꺼내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도전해야 할 쟁점들을 정면으로 제시한다. 20여명의 청소년, 청소년인권활동가의 열띤 숨결을 모아 만든 책이라 더 뜻 깊다.



주먹을 꼭 써야 할까?

이남석 글 | 사계절 | 2011년 | 지식소설 | 함께 사는 세상

심리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책을 집필한 작가가 지식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 이 책은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중간 중간에 심리학적 분석과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소설 속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폭력이 발생하는 심리를 생생한 맥락에서 이해하게 한다.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학부모와 교사에게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고자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준다.



지금은 없는 이야기

최규석 글 그림 | 사계절 | 2011년 | 만화 | 차별 없는 세상

"세상은 이야기가 지배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교훈적인 우화와 미담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을 바라보는 강력한 관점을 제공한다. 불평불만 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속살거리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최규석은 그런 이야기들과 '이야기로'로 싸우기로 결심한다. 우리 현실을 고발하여 새로운 프레임을 제공하는 단단하고 도전적인 우화들이 가득하다.

지독한 장난

이경화 글 | 대교출판 | 2010년 | 소설 | 함께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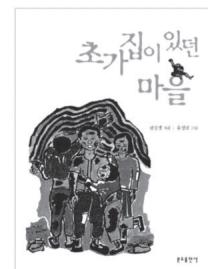
장난처럼 포장되고, 다시 장난처럼 반복되는 왕따. 이 작품은 왕따의 가해자, 방관자, 피해자의 모습을 다양한 시점에서 동등한 무게로 다루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왕따의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어 버린 준서, 그를 왕따로 만든 가해자 강민, 그리고 준서와 강민을 내버려 둔 방관자들, 각자의 입장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독자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게 하고, 다른 위치에 있는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한다.



초가집이 있던 마을

권정생 글 | 홍성남 그림 | 분도 | 2007년 | 소설 | 전쟁 없는 세상

갑자기 일어난 전쟁으로 가족과 동무들을 잃고 슬프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다. 경상도 산골 초등학교 아이들이 겪는 6·25는 온나라를 잣더미로 만들고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잇아가는 비참한 전쟁으로 후전협정을 맺고 세월이 흘러도 그 아픔은 쉽게 아물지 않는다. 초가집이 있던 작은 마을의 행복이 함께 어울려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다.



초콜릿 전쟁

로버트 코마이어 글 | 안인희 그림 | 비룡소 | 2004년 | 소설 | 함께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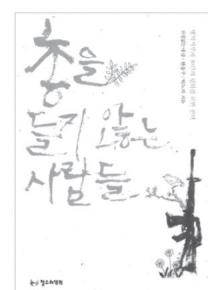
이 책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현실적이고 냉혹하다. 책을 읽는 동안 아이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의 치부를 들여다보고 확인하게 된다. 그들만의 규칙으로 학교를 지배하는 선생과 학생들. 그 불편한 진실들을 예리하게 통찰하며, 인물들의 복잡하고 모순된 심리를 세밀하게 그려낸 작가의 솜씨가 놀랍다. 이 책을 읽고 불편하다면, 그만큼 추악한 우리네 현실을 되돌아본 것이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전쟁없는세상 글 | 철수와영희 | 2008년 | 비소설 | 전쟁 없는 세상

군대를 갔다 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고들 한다. 이런 사회의 통념과 맞서며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되어 감옥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의 수형 생활을 하게 된다. 놀라운 것은, 현정 이래 60여 년 동안 무려 1만여 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있었고 또 해마다 800명의 젊은이가 병역을 거부해 스스로 감옥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30명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에 쓴 글과 편지를 담은 책이다.



태일이 1~5

박태우 글 | 최호철 그림 | 돌베개 | 2007년 | 만화 | 차별 없는 세상

'태일이'를 통해 역사가 미래 세대와 어떻게 소통하며 또 다른 희망을 틔워갈 수 있는지를 해아리게 해 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전태일! 해를 거듭해도 잊혀 지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는 전태일과 시공간을 초월해 만날 수 있다.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힐레스타드 버틀러 글 | 이도영 옮김 | 미래인 | 2008년 | 소설 | 함께 사는 세상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을 섬세한 터치로 낱낱이 그려낸 청소년 소설이다. 어느 날 익명의 누군가가 교내에서 인기가 많은 릴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트루먼 중학교의 악플 사건이 시작된다. 정체 모를 악플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릴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다. 여러 인물들의 독백을 넘나들며 익명의 악플러를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다. 사이버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네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책이다.



페르세폴리스 1, 2

마르잔 사트라피 글 그림 | 김대중, 최주현 옮김 | 새만화책 | 2005년 | 만화 | 차별 없는 세상

펑크록에 심취한 차도르 소녀 '마르잔'은 마이클 잭슨과 아바를 좋아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용감한 소녀다. 하지만 보수적인 사회에서 마르잔은 종종 곤경에 처하게 된다. 강렬한 흑백 이미지의 만화로, 이슬람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자신의 조국인 이란 사회를 거침없이 고발한다.



하늘은 이어져 있다

일본아동문학자협회글 | 문연주 옮김 | 낫은산 | 2008년 | 소설 | 전쟁 없는 세상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자 일본 정부는 군대를 파견했다. 이에 일본 아동문학 작가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동화에 담아 펴냈다. 책에 실린 작품들은 묻는다. 우리가 올려다보는 하늘은 정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세계 모든 곳으로 이어져 있을까? 우리는 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을 모르는 척 눈을 돌리는 걸까?



핵폭발 뒤 최후의 아이들

구드룬 파우제방 글 | 최혜란 그림 | 함미라 옮김 | 보물창고 | 2006년 | 소설

이 책은 선전포고도, 경고도 없이 독일의 한 도시에서 피어 오른 섬광과 벅崽구름으로 시작된다.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섬광과 거센 폭풍을 몰고 온 핵 폭발은 굶주림과 약탈, 원자병과 죽음으로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멸시켰다. 자신들이 부른 재앙에 처참하게 스러져 가는 인류의 모습을 단 한 점의 동정도, 일말의 연민도 없이 냉정하고 덤덤하게 보여주는 이 책은 핵의 공포와 위험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우리들의 미래를 경고한다.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

헬렌 니어링 글 | 디자인하우스 | 2001년 | 논픽션 | 더불어 생명

먹고 사는데는 적어도 절반이상 자급자족 한다는 것과 돈을 모으지 않는다는 것과 동물을 키우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조화로운 삶을 평생 실천한 저자는 남편 스콧 니어링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귀농과 재식 봄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미친 사회라고 규정한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생태적 자치사회'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 한 낡은 농가로 이주하여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영위했다.



“열어보렴”

서랍장 소품들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 전시회

평화를 속삭이는 30개의 서랍장.
닫혀 있는 서랍장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주저 말고 열어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아닙니다.
궁금하면 꺼내서 만져보세요.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지 않나요?
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요?

그럼, 상상해보세요.
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럼 재빨리, 다음 서랍장을 열어 볼까요?

서랍장 물품



물 컵

반짝이는 물을 지키려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양치질 할 때는 꼭 컵에 물을 받아 헹궈요.

관련 책 :『반짝이는 물을 보았니?』

양초

단 한 시간만이라도 전기를 끄고 촛불을 켜 보세요. 뜨겁게 달구어진 지구를 식히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관련 책 :『지구를 위한 한 시간』『지구가 더워졌어요.』

참새인형

짹짹짹 참새가 물건을 판대요. 무엇을 팔고 있을까요?

관련 책 :『하느님 물건을 파는 참새』

약상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요?

관련 책 :『딸꾹질』

테이프로 불인 부러진 연필

짝꿍의 연필을 부러뜨렸어요. 짹꿍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관련 책 :『짜꿍 바꿔주세요.』

눈가리개(안대)

눈가리개를 눈을 가려보아요. 걷거나 움직여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관련 책 :『어떤 느낌일까?』『둥근 해가 떴습니다.』

지구본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또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일을 할까요? 지구본을 돌리다가 손으로 짚어 보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맘껏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사는 친구는 요..." 하고요.

관련 책 :『내가 라면을 먹을 때』『함께 걷는 길』

작은 메모지

메모지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나의 꿈)을 적어보아요.

관련 책 :『니꿈은 뭐이가.』

고양이 인형

관련 책 :『고양이 학교』

빵인형+장미조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겠죠? 100년 전 공장의 노동자들이 외쳤답니다.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지만 장미도 필요하다! 어떤 의미일까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관련 책 :『빵과 장미』

양파

양파는 무엇을 줄인 말일까요? 양파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양파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관련 책 :『양파의 왕따 일기』

주먹모양 장난감(가위, 바위, 보 장난감)

우리가 속상할 때 주먹을 꼭 써야 할까요? 주먹 대신 무엇을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요.

관련 책 :『주먹을 꼭 써야할까?』

곰인형

관련 책 :『곰의 아이들』

사라져가는 동물들 카드

지구에서 사라져 가는 동물들. 이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책 :『새끼 표범』『수달이 오던 날』

황금사과

황금사과나무를 마을 한가운데 두고 마을 사람들이 싸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관련 책 :『황금사과』

야구공, 야구 글러브

아빠랑 운동장에서 캐치볼을 해봐요, 그러면 기분이 정말 좋겠죠.

관련 책 :『마이볼』

(공정무역 관련한 문구가 쓰여 있는) 티셔츠

이 옷이 여기에 있기까지 누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관련 책 :『파란 티셔츠의 여행』

로봇

로봇이 꾸는 꿈을 뭘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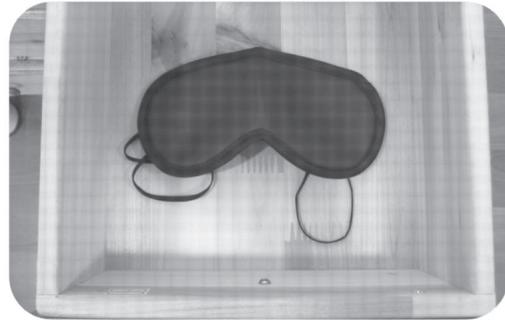
관련 책 :『로봇의 별』

소꿉놀이 인형 중에서 음식 세트

관련 책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점자부채

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서



글을 읽는 글자예요.

관련 책 :『어떤 느낌일까』『달라도 친구』

초콜릿

달콤 쌈싸름한 초콜릿. 이 초콜릿 때문에 학교에서 전쟁이 났대요. 어떤 전쟁일까요?

관련 책 :『초콜릿 전쟁』

히잡

아랍권의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 / 써보기

관련 책 :『페르세폴리스』

호루라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호루라기를 있는 힘껏 부세요.

관련 책 :『유진과 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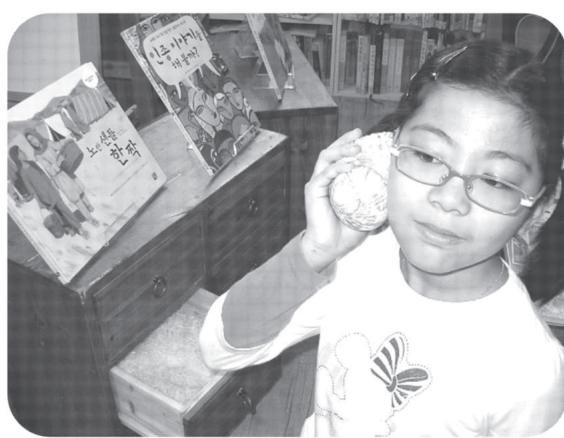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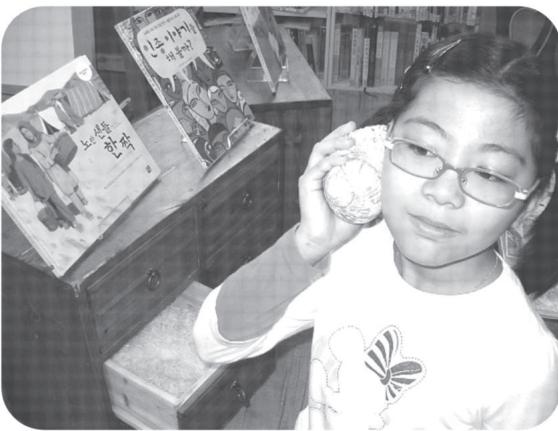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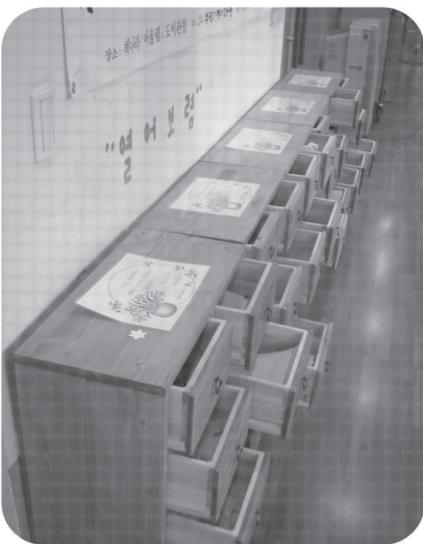
오리 인형

관련 책 :『대포 속에 들어간 오리』

빈 서랍장

도서관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물품을 채워 넣어 주세요.







도서관별 참여프로그램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 전시회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 전시회

도서관별 참여프로그램

책 읽기

- 평화책 읽어주기(동화 구연) • 평화책 돌려읽기 • 동화책 빛 그림 보기 • 이어 읽기 • 점자와 수화로 꾸미는 동화 이야기

느낌 · 생각 표현하기

- 글쓰기 • 연극 • 평화스케치 • 평화 마시기 품기 이야기하기 • 동시, 그림으로 표현하기
- 엽서 쓰기 • 평화 이행시 짓기 • 사포 그림 모자이크 • 평화 메시지 쓰기 • 평화 나무 꾸미기 • 손바닥 찍기 • 종이학 접기 • 평화의 바다, 평화의 물고기 그리기

만들기

- 평화 정원 만들기 • 화분 만들기 • 재활용 가방 만들기 • 평화 나비 • 평화 바람개비 • 캐릭터 • 인권평화책 신문 • 샌드위치 • 버튼 • 리본 • 평화책(미니북) • 평화 온도계 • 협동 작품 그리기 • 책갈피 • 공익 광고 • 홍보물 • 평화의 종 • 점자 스티커 • 평화 가치 사전

평화놀이

- 전래(전통) 놀이 • 몸벌레 • 퀴즈 • 스펜지
- 보물찾기 • 퍼즐 맞추기 • 이어 달리기 • 오재미 만들기

체험

- 장애 체험 • 아이 질문에 어른이 답 쓰기 • 책과 만나는 산책 길 • 다른 나라 전통 의상 접기 • 분쟁 지역 세계 지도 만들기 • 음식 만들어 나눠 먹기 • 페이스페인팅 • 솜사탕 만들어 먹기 • 달고나 만들어 먹기

공연 · 영상

- 문화 공연 • 북 콘서트 • 평화 인권 영화 보기 • 오카리나 공연 • 가족 앙상블 • 마술 • 동극 • 인형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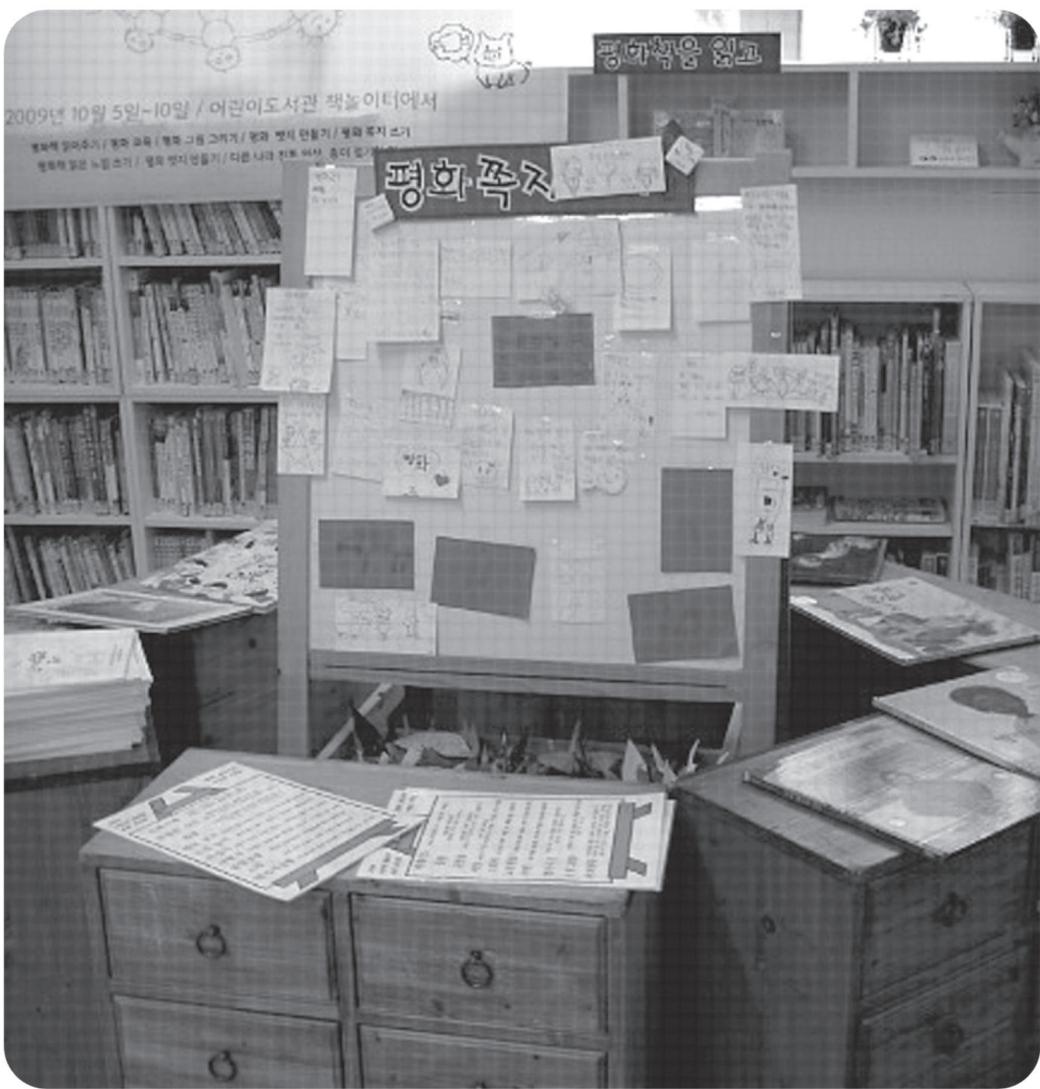
교육

- 평화 교실 • 평화감수성 교육 • 독서 토론회 • 평화 수업

평화 실천

- 평화 장터 • 장난감 무기 씨앗으로 바꾸기
- 행복 밥상 나누기 • 평화 나들이 • 사랑의 빵 나누기 • 평화지킴이 수첩 만들기





부산지역 공동

▶ 부산지역 순회 전시회 주관 부산어린이어깨동무

▶ 부산지역 순회 전시회 공동주최

- 과정초등학교 • 글마루작은도서관 • 남문초등학교 • 민주공원 • 사상도서관 • 성지달팽이작은도서관 • 신호초등학교 • 우리동네도서관 • 책마루도서관 • 책방골목문화관 • 풀잎작은도서관 • 화명도서관

행사내용

참가기관	전시기간	프로그램
과정초등학교 -느티나무 책마루	6.1~6.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화읽기 – 평화책 읽기 2. 평화듣기 – 도서실 선생님의 평화책 읽어주기 3. 평화보기 – 평화책 원화 감상하고 타일에 그림 그려보기 4. 평화만지기 – 평화서랍 열어보고 만져보기 5. 함께만드는 평화 – 타일에 평화 그림 그리기 – 내가 생각하는 평화란 6. 학부모와 함께하는 평화책 토론 – 주제: 우리 아이들의 폭력과 왕따문제 어떻게 도와야 하나?
화명도서관	6.5~6.1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화책 전시회 – 일정 : 6/5~6/19 – 장소 : 도서관 1층 로비 – 내용 : 평화책 2. 평화영화제 – 일정 : 6월 매주 토요일 – 장소 : 지하층 시청각실 – 상영작: 인생은 아름다워, 태극기 휘날리며, 테라, 피아니스트 3. 아우그리기 – 일정 : 6/5~6/19 – 장소 : 도서관 1층로비 – 내용 : 세계어린이를 직접 그리는 전시, 체험행사
양산책마루 도서관	6.2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책 전시 – 전시관련 체험프로그램

참가기관	전시기간	프로그램
책방골목 문화관	7.1~7.30	<p>1. 순회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방문 프로그램으로 운영 <p>2. 책 읽기/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책 슬라이드 연속 상영 (3층 전시실) - 기획 상영 (7층 어린이실) - 할머니가 읽어주는 평화이야기 (7월 5일 ~ 8월 30일, 매주 (목)~8회 오전 중) <p>3. 느낌 · 생각 표현하기 / 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느끼는 평화는요?” – 글쓰기, 그림그리기 - 선정도서를 읽고 책에 나오는 캐릭터 만들기 등 <p>4. 작가와의 대화(가) – 책과 함께 하는 인권평화이야기</p>
사상도서관	7.17~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책 전시 - 전시관련 체험활동
풀잎작은 도서관	6.17~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책 전시 - 어린이<경제야, 놀자>행사 연계 체험활동 진행 - 평화의 서랍 열어보기
민주공원	9.22~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어린이청소년 평화책 전시 - 평화의 나무목걸이 만들기 - 평화나무에 소원걸기 ~ 소원걸고 솜사탕 냠냠
신호초등학교	10.8~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책 전시 - 평화책과 함께 하는 북아트 만들기 - 전시관련 체험프로그램
남문초등학교	10.8~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책 읽어주기-독서동아리 어머니들 자원봉사 - 평화를 주제로 한 사포그림 모자이크 - 평화는 ○○이다 말 넣기 - “평화”로 이행시 짓기 - 평화 나무 꾸미기 ~ 평화를 비는 소원글 적어서 나무에 걸기 - 평화 관련 동영상 보기 - 분쟁지역 세계지도에 표시하기
글마루작은 도서관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책 상시 전시 - 평화나무를 키워라 - 어린이 평화영화 상영 - 어린이 평화교육 수업 진행

인천지역 공동

▶ 인천지역 순회 전시회 주관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

▶ 공동주최

- 골목도서관 • 진달래어린이도서관 •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 콩세알도서관 • 품앗이어린이
도서관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참가기관	전시기간	프로그램
골목도서관	8.6 ~ 8.31	'나는 평화를 꿈꿔요' –분단의 역사 바로보기: 자유공원 탐방, 평화책 같이 읽고 활동
진달래어린이도서관	9.3 ~ 9.21	평화책 함께 읽기, 희망의 나무 꾸미기, 평화 화채 만들기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9.24 ~ 10.12	평화책 읽기
콩세알어린이도서관	10.15 ~ 11.3	빛그림 상영, 이행시 짓기, 평화엽서쓰기, 생명 평화의 판화 찍기
품앗이어린이도서관	11.5 ~ 11.23	평화책 읽기

공동 프로그램

- '읽어보렴' : 평화책 150권 전시, 원화프린트 전시
- '열어보렴' : 평화책 관련 소품 포함한 30개 서랍장

단일 도서관

▶ 강정마을평화북카페

기간 2012년 10월 12일~상설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 경기도미술관

기간 2012년 11월 7일~2012년 11월 30일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원화 전시, 서랍장 운영

▶ 군포시중앙도서관

기간 2012년 9월 3일~2012년 9월 15일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원화 전시

▶ 귀덕초등학교 ‘오순도순글숲’ 도서관

기간 2011년 9월 5일~2011년 9월 9일

행사이름 : 얘들아, 평화바다에 풍덩 빠져보자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평화교실, 평화책 읽기, 평화 걸개그림그리기

▶ 꿈나무책놀이방

기간 2012년 6월 19일~2012년 6월 21일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원화 전시, 서랍장 운영

▶ 달리도서관

기간 2012년 9월 3일~2012년 9월 14일

행사이름 : 평화의 발견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평화의 바다에 풍덩, 평화영화보기
→ 평화마시기, 품기, 이야기하기

▶ 대구동성초등학교 늘벗도서관

기간 2012년 6월 8일~2012년 6월 14일

행사내용

- 평화책 원화 전시 : 평화책 속 그림을 아름다운 원화로 감상하며 책 속 내용 되새기기
- 평화 읽기 독서 코너 운영 : 열람실의 다양한 장소를 이용하여 전시된 평화책 가족과 함께 읽기
- 책 속 평화 찾기: 바구니에서 책 속 한 구절이 적힌 종이를 뽑아 전시된 책 중 그 구절이 인쇄된 책을 찾은 뒤 상품 받기
- 평화서랍 체험하고 친환경 책갈피 만들기 : 평화책 속 이야기와 관련된 소품이 든 서랍장을 열어 체험하고 소품의 쓰임, 의미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하기,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지 평화책 스펜지 형식으로 써서 꽃잎 압착 친환경 책갈피 만들기
- 평화책 퍼즐 맞추기: 평화책 표지 또는 삽화로 만든 퍼즐을 가족과 함께 맞추어 보고 제한 시간 내에 완성하여 선물 받기

▶ 대정골지역아동센터

기간 2012년 7월 1일~2012년 7월 20일

행사이름 : 평화나라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어린이 110종 / 청소년 40 종), 평화대행진(걸어서 도보행진)

▶ 마포구립서강도서관

기간 2012년 9월 1일~2012년 9월 14일

장소 장소 : 2층 다목적실, 3층 세미나실, 4 층 어린이자료실 등

행사내용

행사명	일시	장소	소개	
지령이 울음소리를 들어봐	9월 1일(토)~14일(금)	4층 어린이자료실	주제 도서전	
열어 보렴	9월 1일(토)~14일(금)	4층 어린이자료실	평화책 속 이야기와 관련된 소품이 들어가 있는 서랍장 체험	
[작가와의 만남] 만화가 최규석의 지금은 없는 이야기	9월 6일(목) 늦은 7시	2층 다목적실	지금은 없는 이야기의 최규석 작가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이]야기가 있는 그림전] 지령이 울음소리를 들어봐	9월 1일(토)~14일(금)	4층 어린이자료실	원화전시	
도서관 영화극장	율지마 톤즈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9월 2일(일) 늦은 2시 9월 9일(일) 늦은 2시	3층 세미나실	평화영화 감상
나는 평화를 꿈꿔요	9월 1일(토) 이른11시, 12시 늦은 2시 9월 2일(일) 늦은 1시 9월 8일(토) 이른11시, 12시 9월 9일(일) 늦은 1시	4층 꼬마방	평화책 읽어주기	

▶ 동녘도서관

기간 2012년 9월 24일~2012년 10월 8일

행사이름 : 평화독서교실

행사내용

- 평화책읽기, 평화놀이, 글쓰기, 체험활동

▶ 성립초등학교도서관

기간 2012년 6월 4일~2012년 6월 8일 (현충일제외, 4일간)

행사이름 : 학교도서관과 함께하는 1주간의 평화 기행

행사내용

행사 이름	일시	장소	대상	내용
평화를 열어 보렴	6.4~6.8	도서관	전교생	평화소품 서랍장 열어보기
평화 타일 그리기	6.4~6.8	도서관	전교생	평화 소품을 보고 느낀 점을 타일에 그림으로 나타내기
평화 란?	6.4~6.8	도서관	희망자	평화관련 전시 도서를 읽고 소감을 써서 나무에 걸기
평화를 보여줘	6.5	도서관	희망자	평화 관련 영화 보기
평화도서 읽어주기	6.4~6.8	교실	희망자	각반 교실에서 어머니 또는 선생님들이 평화 책 읽어주기
평화를 위한 지도 만들기	6.8	도서관	희망자	세계 분쟁 지역의 지도를 만들며 평화가 찾아온 세상을 꿈꾸기. 평화 캠페인 자료 만들기

▶ 안골포초등학교반딧불도서관

기간 2012년 10월 22일~2012년 11월 3일

행사내용

- 평화책 살펴보기
- 서랍장 체험
- 원화 감상
- 빛그림 상영
- 평화책 읽어보기
- 평화책 표현해보기

▶ 어린이청소년도서관책놀이터

기간 2012년 7월 9일~2012년 7월 21일

행사내용

- 평화아바타 만들기
- 평화교육 – 평화란 무엇일까?
- 평화책 읽어주는 의자
- 평화 시쓰기
- 평화책갈피 나누기

▶ 영종도서관

기간 2012년 6월 12일~2012년 6월 30일

장소 : 영종도서관 꿈자람터 및 어문학실

행사내용

행사 이름	참여대상	일시	장소	내용
“지령이 울음소리를 들어봐” 평화책 전시	누구나	06.12.(화)~06.30.(토)	꿈자람터, 어문학실	주제 도서전
내 눈에 평화 <평화란 어떤걸까?>	누구나	06.12.(화)~06.30.(토)	1층 로비	평화 관련 그림책, 원화 전시
평화서랍장 내 손에 평화 -열어보렴	누구나	06.12.(화)~06.30.(토)	꿈자람터	체험
내 귀에 평화를 들려주세요!	유아, 어린이	06.15.(금) 04:00 06.22.(금) 04:00	꿈자람터 내 모자실	평화와 관련된 동화책 읽어주기
내 마음에 평화 “평화의 꽃을 피워요” <평화의 화분 만들기>	초3	06.22.(금) 11:00	세미나실 2	평화 책 감상 및 서랍장 체험 후 평화 화분 만들기 행사 진행

▶ 오남중학교도서관

기간 2012년 10월 5일~2012년 10월 15일

행사이름 : 책과 함께 하는 인권평화 주간

행사내용

- 평화나비 : 평화에 관한 쪽지쓰기
- 평화UCC : 평화에 관한 UCC 제작
- 평화노란리본달기 :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의 다짐 쓰기.
- 친구들아 내 이야기 들어볼래? : 평화그림 책을 읽고 추천글 쓰기.
- 평화 영화 상영회 : 평화 관련 영화 상영

▶ 오안초등학교도서관

기간 2012년 11월 1일~2012년 11월 13일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원화 전시, 서랍장 운영, 책 만들기

▶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기간 2012년 8월 13일~2012년 8월 24일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 재미있는느티나무도서관

기간 2012년 11월 21일~2012년 11월 30일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원화 전시, 서랍장 운영



▶ 정선꿈꾸는도서관

기간 2012년 10월 20일~2012년 11월 4일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원화 전시, 서랍장 운영

▶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짜장

기간 2012년 10월 6일(월)~2012년 10월 20일

행사내용

- 도서관에서 어린이와 함께 평화 책 읽고 나의 느낌, 생각 표현하기 프로그램 진행
- 축제 진행시 책 전시와 함께 평화지도 그리기.
- 평화의 쪽지 쓰기

▶ 포항시립포은도서관

기간 2012년 6월 18일~2012년 6월 30일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 전쟁관련 시화전, 6.25 동영상, 전쟁영화 상영

▶ 흥덕문화의집

기간 2012년 9월 18일~2012년 10월 2일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원화 전시, 서랍장 운영

▶ 책이랑도서관

기간 2012년 8월 13일~2012년 8월 18일

행사내용

- 평화책 전시, 원화 전시, 서랍장 운영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 전시회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목록

2006~2011년 (총 383종)

1. 1964년 여름	데버러 와일즈 글, 제롬 리가히그 그림, 김미련 옮김 느림보
2. 마일 속의 우주	쳇 레이모 글, 김혜원 옮김 사이언스북스
3. 20년간의 수요일	윤미향 글 웅진주니어
4. 26년(1~3)	강풀 글 그림 문학세계사
5. 4·19혁명	윤석연 글, 소복이 그림 한겨레틴팅
6. 6학년 1반 구덕천	허은순 글, 곽정우 그림 현암사
7. 가지에 띄운 편지	발레리 제나티 글, 이선주 옮김 낭기열라
8. 가족 앤 범	실비아 다이네르트, 티네 크리그 글, 울리케 불안 그림, 염혜숙 옮김 사계절
9. 간디의 뒤를 따라서	앤 시블리 오브라이언, 페리 에드먼드 오브라이언 글, 김남중 옮김 여름산
10. 개구리네 한술밥	백석 글, 유애로 그림 보림
11. 개와 고양이의 영웅 플릭스	토미 웅거려 글·그림, 이현정 옮김 비룡소
12. 거꾸로 생각해 봐! 세상이 달라 보일 걸	우석훈, 강수돌 외 글 낮은산
13. 거짓말이 가득	오카 슈조 글, 노석미 그림, 고향옥 옮김 창비
14. 고릴라 왕과 대포	나마치 사부로 글, 고바야시 유우지 그림 한림출판사
15. 고슴도치 아이	카타지나 코토프스카 글 그림, 최성은 옮김 보림
16. 곤다르의 따스한 빛	미나미 나나미 글, 요 쇼메이 그림, 노경실 옮김 주니어 김영사
17. 곰 인형 오토	토미 웅거려 글 그림, 이현정 옮김 비룡소
18. 곰이라고요, 곰!	프랭크 태슬린 글 그림 계수나무
19. 괜찮아 우리는	위베르 리브 외 글, 이선주 옮김 검동소
20. 교환학생	크리스티네 뉴스틀링거 글, 김재희 옮김 동녘
21.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하승우 글 뜨인돌
22. 굿모닝 베마	기 들릴 글, 소민영 옮김 서해문집
23. 그 때 프리드리히가 있었다	한스 페터 리하터 글, 배정희 옮김 보물창고
24. 그 숲에는 거북이가 없다	로이스 로리 글, 서남희 옮김 양철북
25. 그래도 넌 내 짹꿍	아오키 히로에 글 그림, 김난주 옮김 아이세움
26. 그리운 매화향기	장주식 글, 김병하 그림 한겨레 아이들
27. 그리운 메이 아줌마	신시아 라일런트 글, 햇살과나무꾼 옮김 사계절
28. 그리즐리를 찾이라	자미 바스테도 글, 박현주 옮김 검동소
29. 그림자 개	말라 다일 엮음, 아잔따 구하타꾸르따 외 그림, 이화경 옮김 창비
30. 글짓기 시간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글, 알폰소 루아노 그림, 서애경 옮김 아이세움
31. 금희의 여행	최금희 글, 임양 그림 민들레
32. 기억할게요	루스 밴더 지, 매리언 스나이더 글, 빌 판스워드 그림, 이현정 옮김 맑은가람
33. 기찻길 옆 동네 1, 2	김남중 글, 류충렬 그림 창비
34. 길 모퉁이 행운돼지	김종렬 글, 김숙경 그림 다림
35. 길에서 만난 세상	박영희, 오수연, 전성태 글, 김윤섭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우리교육
36.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 1, 2	김태권 글 그림 비아북
37.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글 그림, 윤구병 옮김 비룡소
38. 깨만 얼굴의 루비	루비 브리지스 글, 오정택 그림, 고은광순 옮김 웅진주니어

39. 까매서 안 더워?	박채란 글, 이상권 그림 파란자전거
40. 강통 소년	크리스티네 놀스틀링거 글, 프란츠 비트캄프 그림, 유혜자 옮김 아이세움
41. 꼬마 철학자 우후	간자와 도시코 글, 이노우에 요스케 그림, 권위숙 옮김 비룡소
42. 꼬물꼬를 일과 놀이 사전	윤구병 글, 이형진 그림 보리
43. 끌찌도 상이 많아야 한다.	임길택 엮음, 정지윤그림 보리
44. 꽃	박건웅 글 그림 새만화책
45. 꽃 피우는 아이 티스투	모리스 드뤼옹 글, 지끌린 뒤엠 그림, 나선희 옮김 길벗어린이
46. 꽃섬고개 친구들	김중미 글 검동소
47. 꽃신	이경자 글, 오오니시 미소노 그림, 박숙경 옮김 창비
48. 꽃할머니	권운덕 글 그림 사계절
49. 꿈처럼 자유로운	마농 파르제통 글, 박선주 옮김 여름산
50. 꿩꿍이 철학박사, 드디어 움직이다	크리스티네 놀스틀링거 글, 크리스티아네 놀스틀링거 그림, 김영진 옮김 아이세움
51. 나 좀 내버려 둬	박현진 글, 윤정주 그림 돌베개어린이
52. 나 혼자 자라겠어요	임길택 시, 정승희 그림 창비
53. 나는 8살, 카카오밭에서 일해요	미즈요리 도모코 외 글, 이영미 옮김 서해문집
54. 나는 아이로서 누릴 권리가 있어요!	알랭 세레 글, 오렐리아 프롱티 그림, 이경혜 옮김 고래이야기
55. 나는 입으로 걷는다	오키 슈조 글, 다치바나 나오노스케 그림, 고향목 옮김 웅진주니어
56. 나는 평화를 꿈꿔요	유니세프 엮음, 김영무 옮김 비룡소
57. 나는야, 늙은 5학년	조경숙 글, 정지혜 그림 비룡소
58. 나라안푸로 아이들	사시 데슈판데 글, 원혜영 그림, 이시영 옮김 창비
59. 나랑 좀 달라도 괜찮아	캐스린 케이브 글, 크리스 리들 그림, 문성원 옮김 주니어김영사
60.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디 브리운 글, 최준석 옮김 한겨레
61. 나를 찾아줘	은이정 글, 김경희 그림 교학사
62. 나무가 사라진 나라	후지 마치코 글, 고바 요코 그림, 계일 옮김 계수나루
63. 나무를 만져보세요	송혜승 글 창비
64.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글, 페레데릭 백 그림, 헛살과 나무꾼 옮김 두레
65. 나무집	로날드 톨만, 마리에 톨만 글 그림 여유당
66. 나비가 전해 준 희망	페트리사 폴라코 글 그림, 최순희 옮김 베틀북
67. 나에겐 드레스 백 벌이 있어	엘레노어 에스테스 글, 루이스 슬로보드킨 그림, 엄혜숙 옮김 비룡소
68. 나의 베트남 일기장	마리 셀리에 글, 세실 감비니 그림, 전연자 옮김 맑은가람
69. 낙원섬에서 생긴 일	찰스 키핑 글 그림, 서애경 옮김 사계절
70. 난 빨강	박성우 글 창비
71. 난 원래 공부를 못 해	은이정 글, 정소영 그림 창비
72. 날개달린 풍차바지	최은순 글, 에스더 그림 우리교육
73.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	오자와 아카미 글, 김동성 그림, 김숙 옮김 북뱅크
74.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야기	베벌리 나이두 글, 이경상 옮김 생각과느낌
75. 낫찧은 할 수 있어	김승이 글, 흥영우 그림 보리
76. 낫찧이 같다	김승이 글, 흥영우 그림 보리
77. 내게 금지된 책들	캐스린 래스키 글, 서정은 옮김 낫은산
78. 내 날개 웃은 어디 갔지?	안미선 글, 정자현실 그림 철수와영희
79. 내 어머니 사는 나라	이금이 글, 이선주 그림 푸른책들
80. 내 옆자리 비었어	파울 마어 글, 베레나 밸하우스 그림, 김영진 옮김 아이세움
81. 내 이름은 타이크	진 캠프 글, 오승민 그림, 헛살과나무꾼 옮김 창비
82. 내 이름이 담긴 병	최양숙 글 그림, 이명희 옮김 마루벌
83.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정유정 글 비룡소
84. 내 친구 이크발	정희성 글, 노희성 그림 영림카디널
85.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하세가와 요시후미 글 그림, 장지현 옮김 고래 이야기

86. 내가 살던 용산	김성희 외 글 보리
87. 내일은 막을까요	뤼스 피울 글, 마르틴 부르 그림, 김애련 옮김 비룡소
88. 내일을 빼앗지 말아요	도미니크 디메이 글, 사과나무 옮김 크레용하우스
89. 냄비와 국자 전쟁	미하엘 엔데 글, 크리스토퍼 로들러 그림, 곱발바닥 옮김 한길사
90. 너, 그어 이리 내놔!	티에리 르냉 글, 베로니크 보아리 그림, 최윤정 옮김 비룡소
91. 너는 나다	하종강 외 글 레디양, 후마니타스, 삶이보이는창, 철수와영희
92. 너는 내 사랑이야	베아트리체 알레만나 글 그림, 고승희 옮김 주니어 김영사
93. 너는 행복하니?	세이브 더 칠드런 기획, 설배환 옮김 검동소
94. 네 얼굴을 보여줘	알렉스 쿠소 글, 나탈리 슈 그림, 유민정 옮김 시소
95. 네 잘못이 아니야, 나탈리	질 티보 글, 마리 클로드 파브로 그림, 이정주 옮김 어린이작가정신
96. 내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	낸시 틸먼 글 그림, 이상희 옮김 내인생의책
97. 노근리 그 해 여름	김정희 글, 강전희 그림 사계절
98. 노란 샌들 한 짝	카렌 린 월리암스 글, 둑 체이카 그림, 이현정 옮김 맑은가람
99. 노란별	카르멘 애그라 디디 글, 헨리 쇠렌센 그림 해와나무
100. 노래하는 나무	베르나르 클라벨 글, 크리스티안 하인리히 그림, 전재린 옮김 두레이아이들
101. 놀아요 선생님	남호섭 시, 이윤엽 그림 창비
102.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쿠루사 글, 모니카 도페르트 그림, 최성희 옮김 동쪽나라
103. 느티는 아프다	이용포 글 푸른책들
104.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셰스카 글, 레인 스미스 그림 보림
105. 니코오빠의 비밀	알키 지 글, 최선경 옮김, 마상용 그림 창비
106. 난자걸스	김혜정 글 비룡소
107. 다르다넬 왕 이야기	아누슈 스타니 글 그림, 이지원 옮김 여유당
108. 다름이의 남다른 여행	최유성 글, 김중석 그림 우리교육
109. 달라도 친구	허은미 글, 정현지 그림 웅진주니어
110. 달보다 멀리	크리스틴 해리스 글, 헬렌 옹 그림, 심재중 옮김 한마당
111. 대추리 아이들	김정희 글, 홍정선 그림 사계절
112. 대포 속에 들어간 오리	조이 카울리 글, 로빈 벨튼 그림, 흥연미 옮김 베틀북
113. 대한민국 원주민	최규석 글 그림 창비
114. 대한민국 학교 대사전	학교대사전편찬위원회 엮음 이례
115. 대한민국사 (1~4)	한홍구 글 한겨레
116. 도도새와 카바리아나무와 스모호 추장	손춘익 글, 송수정 그림 다림
117. 도둑	서자선 글, 김병하 그림 한겨레아이들
118. 도와줘 제발	엘리자베스 츄러 글, 임정희 옮김 주니어김영사
119. 도착	숀tan 그림 사계절
120. 도토리의 집(1~7)	아마모토 오사무 글 그림, 김은진 옮김 한울림
121. 독수리의 눈	론 버니 글, 지혜연 옮김 우리교육
122. 둘 깨는 아이들	범 라우티 글, 솜브 라이 그림, 이주노동자 방송국 기획 작가들
123. 돌멩이국	존 J 무스 글 그림, 이현주 옮김 달리
124. 동물들의 동맹파업	크리스티앙 부사르디 글, 빼에르 에자르 그림, 김주열 옮김 두레
125. 동물서비스단의 스타탄생	제니 트립 글, 김민미 그림, 오지현 옮김 가문비
126. 동물원	앤서니 브라운 글 그림, 장미란 옮김 논장
127. 동백꽃과 동박새	이미숙 글, 황연주 그림 마루벌
128.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글 그림, 허은미 옮김 웅진닷컴
129. 두 섬 이야기	요르크 슈타이너 글, 요르크 월러 그림, 김라합 옮김 비룡소
130. 등근해가 떴습니다	장경혜 글 문학동네
131. 들소의 꿈	김남중 글, 오승민 그림 낮은산
132. 따로따로 행복하게	배빗 콜 글 그림, 고정아 옮김 보림

133. 딱 친구 강만기	문선이 글, 민애수 그림 푸른숲
134. 땅따먹기	최진영 글/김홍모 그림 청년사
135. 떠돌이 할아버지와 집 없는 아이들	나탈리 새비지 칼슨 글, 가스 월이엄스 그림 아이세움
136. 또 다른 아들	도릿 오르가드 글, 박미섭 옮김 검동소
137. 똑똑하게 사는 법	고미 타로 글 그림, 강방화 옮김 한림
138. 둘째가 보고 온 달나라	권정생 외 글, 강요배 그림 창비
139. 두간던	이용포 글 푸른책들
140. 똑똑똑똑 인권짓기	인권운동사랑방 글, 윤정주 그림 야간비행
141. 뚱보, 내 인생	미카엘 올리비에 글, 송영미 그림, 조현실 옮김 바람의아이들
142. 레닌그라드의 기적	얌 터르 하르 글, 페이터르 파울 라우베르다 그림, 유동익 옮김 다림
143. 레슬리의 비밀일기	앨런 스트래튼 글, 이장미 그림, 박슬라 옮김 소년 한길
144. 로봇의 별(1~3)	이현 글, 오승민 그림 푸른숲주니어
145. 마녀 사냥	라이프 에스퍼 앤너슨 글, 매스 스탠에 그림, 김경연 옮김 보림
146. 마르코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	마르코스 글, 박정훈 옮김 현실문화연구
147. 마지막 거인	프랑수아 플라스 글 그림, 윤정임 옮김 디자인하우스
148. 마코토의 푸른 하늘	시즈타니 모토코 글, 후쿠다 이와오 그림, 김정화 옮김 아이세움
149. 마틴 루터 킹	권태선 글, 강우근 그림 창비
150. 만화로 평화만들기	강도영 외 13인 바다
151. 말 안 하기 게임	앤드루 클레먼츠 글, 이원경 옮김 비룡소
152. 매기와 초콜릿 전쟁	미셸 멀더 글, 김루시아 옮김 초록개구리
153. 매듭을 묶으며	빌 마틴 주니어, 존 아캠볼트 글, 테드 랜드 그림,김장성 옮김 사계절
154. 머피와 두월이	김우경 글, 송진현 그림 지식산업사
155. 모든 가족은 특별해요	토드 파 글 그림, 원선화 옮김 문학동네
156. 모르는 책	우메다 쇼사쿠, 요시코 글 그림, 송영숙 옮김 길벗어린이
157. 모스 가족의 용기있는 선택	엘伦 레빈 글, 김민석 옮김 우리교육
158. 모차르트를 위한 질문	마이클 모퍼고 글, 마이클 포맨 그림, 김영선 옮김 웅진주니어
159. 통실언니	권정생 글, 이철수 그림 창비
160. 무기 팔지 마세요!	위기철 글, 이희재 그림 청년사
161. 무탄트 메시지	말로 모건 글, 류시화 옮김 정신세계사
162. 문제야	박기범 글, 박경진 그림 창비
163. 민통선 평화기행	이시우 사진 글 창비
164. 바닷가 아이들	권정생 글, 박불동 그림 창비
165. 바람의 딸 사바누	수잔느 피셔 스테이플스 글, 김민석 옮김 사계절
166. 바보별	나가사키 겐노스케 글, 김병호 그림, 양미화 옮김 창비
167. 박뛰엄이 노는 법	김기정 글, 허구 그림 계수나무
168. 박순미 미용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 모임(더작가) 글 그림 한겨레아이들
169. 밥데기 죽데기	권정생 글, 박지훈 그림 바오로 딸
170. 베를린에서 온 편지	이레네 디쉐 글, 한미희 옮김 웅진닷컴
171. 벽이	공진하 글, 오승민 그림 낮은산
172. 별의 눈	사카리우스 토펠리우스 글, 율리아 우스티노바 그림, 최선경 옮김 보림
173. 보이지 않는 사람들	박영희 글 우리교육
174. 보이지 않는 적	아베 나쓰마루 글, 정지혜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창비
175. 보통시민노씨의 548일 북한체류기 (상, 하)	오영진 글 그림 창비
176. 봉주르, 뚜르	한운섭 글, 김진화 그림 문학동네어린이
177. 북두칠성을 따라간 지하철도	F.N. 몬조 글, 프레드 브레너 그림, 이승숙 옮김 사계절
178. 북쪽나라 자장가	낸시 화이트 칼스트롬 글, 리오 딜런, 다이앤 딜런 그림, 이상희 옮김 보림
179. 불꽃머리 프리데리케	크리스티네 놀스틀링거 글, 바비로 발드슈츠 그림, 김영진 옮김 소년한길

180. 불볕 속의 사람들	가싼 카나파니 글, 김종철, 천지현 옮김 창비
181. 불어라 평화바람	문정현, 평화바람 글 검동소
182. 불을 가진 아이	김옥 글, 김윤주 그림 사계절
183.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 글 창비
184. 블은 스카프	지양지리 글, 홍영분 옮김 아침이슬
185. 블은 조각달	로즈메리 웰스 글, 김율희 옮김 다른
186. 블루시아의 가위 바위 보	김종미 외 글, 윤정주 그림 창비
187. 비너스에게	권하은 글 자음과 모음
188.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억배 글 그림 사계절
189. 비자 비아, 비자벨	아나 마리아 마사두 글, 헤지나 올란다 그림, 남진희 옮김 우리교육
190. 빙하쥐 털가죽	미야자와 겐지 글, 김선배 그림, 이경옥 옮김 우리교육
191. 빽빽머리 엄마	박관희 글, 박해남 그림 낮은산
192. 뺑과 장미	캐서린 패터슨 글, 우달임 옮김 문학동네
193. 빼앗긴 내일	줄라타 필리포비, 멜라니 챌린저 엮음, 정미영 옮김 한겨레아이들
194. 사라, 버스를 탄다	윌리엄 밀러 글, 존 워드 그림, 박찬석 옮김 사계절
195. 사막으로 사라진 아이들	엘리자베스 레어드 글, 이승숙 옮김 뜨인돌
196. 산골아이	임길택 시, 강재훈 사진 보리
197. 산적의 딸 로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일본 비클란드 그림, 이진영 옮김 시공주니어
198. 살꽃이야기	어린이도서연구회 엮음 오늘
199. 새끼개	박기범 글, 유동훈 그림 낮은산
200. 새들은 시험 안 봐서 좋겠구나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엮음 보리
201. 새똥과 전쟁	에릭 바튀 글 그림, 양진희 옮김 교학사
202. 샌드위치 바꿔 먹기	라니아 알 압둘라, 켈리 디푸치오 글, 트리샤 투사 그림, 신형건 옮김 보물창고
203. 생각한다는 것	고병권 글, 정문주, 정지혜 그림 너머학교
204.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	위기철 글, 이희재 그림 사계절
205. 선들내는 아직도 흐르네	김우경 글, 이승민 그림 문학과자성사
206. 섬	아민 그레더 글 그림, 김경연 옮김 보림
207. 세계 어린이 인권 학교(1~4)	도미니고 외 글, 세르주 블로흐 외 그림, 김태희 옮김 푸른숲
208. 세계 어린이와 함께 배우는 시민학교(1~7)	로라 자페 외 글, 레지 팔러 외 그림, 장석훈 옮김 푸른숲
209. 세계에서 빙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다나카 유 외 글 알마
210.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	페트리사 매클리클랜 글, 마이크 위머 그림, 최지현 옮김 보물창고
21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	고바야시 유타카 글 그림, 길지연 옮김 미래M&B
212.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전쟁	데이비드 맥키 글 그림, 민유리 옮김 베틀북
213. 세 잔의 차	그레그 모텐슨, 데이비드 올리비에 웰린 글, 권영주 옮김 이례
214. 손님	윤재인 글, 민소애 그림 느림보
215. 손바닥에 쓴 글씨	김옥 글, 이은천 그림 창비
216. 손수레 전쟁	진 메릴 글, 김율희 옮김 다른
217. 스물 네 개의 눈동자	초보이 사카에 글, 김난주 옮김 문예출판사
218. 슬픈 랜들린	카트린 마이어 글, 아네트 블라인 그림, 허수경 옮김 문학동네 어린이
219. 시냇물 저쪽	엘즈비에타 글 그림, 홍성혜 옮김 마루벌
220. 쑤우프, 엄마의 이름	사라 웍스 글, 김선영 옮김 낮은산
221.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안미란 글, 윤정주 그림 창비
222. 아담을 기다리며	마사 베크 글, 김태언 옮김 녹색평론사
223.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최세희, 전성원, 손동수 글 낮은산
224. 아마존 숲의 편지	잉그리드 비스마이어 벨링하전 글 그림, 김현좌 옮김 해솔
225.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엄기호 글 낮은산
226.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배봉기 글 사계절

227. 아버지의 그림 편지	곤살로 모우레 글, 페르난도 마르틴 고도이 그림, 김정하 옮김 푸른숲
228. 아프가니스탄의 눈물(1~3)	데보라 엘리스 글, 권혁정 옮김 나무처럼
229. 아프리카아프리카	김용찬 글, 한태호 그림 문공사
230. 앤다만 섬의 소년	자이 휘태거 글, 아소크 라자고팔란, 인드라네일 다스 그림, 조연숙 옮김 달리
231. 알고 싶어요 인디언	테아 로스 글 그림, 이현우 옮김 산하
232. 앤 아이 블루?	매리언 데인 바우어 외 글, 조은주 옮김 낭기열라
233. 어느 날 밤, 전쟁기념탑에서…	페프 글 그림, 조현실 옮김 물구나무
234. 어느 날, 신이 내게 왔다	백승남 글 예담
435. 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츠 글, 와다 마코토 그림 보림
236. 어떤 동네	유동훈 글 사진 낯은산
237. 어른들은 왜 그래?	윌리엄 스타이그 글, 조세현 옮김 비룡소
238. 어린이는 어린이다	이현 글, 박서영 그림 해와나무
239.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지식산업사
240. 어퍼컷	정희준 글 미지북스
241. 엄마가 수놓은 길	재클린 우드슨 글, 허드슨 탤봇 그림, 최순희 옮김 웅진
242. 마는 반역자	로러 윌리엄스 글, 정현정 옮김 문원
243. 엄마의 마흔 번째 생일	최나미 글, 정용연 그림 청년사
244. 여섯사람	데이비드 매치 글 그림, 김중철 옮김 비룡소
245. 여자 아이 클로딘	마리 크리스틴 엘거슨 글, 박희원 옮김 바람의아이들
246. 열두 살 소령	아마두 쿠루마 글, 유정애 옮김 미래인
247. 열일곱 살의 털	김해원 글 사계절
248. 예니의 끝나지 않은 축제	미셸 멀더 글, 김태현 옮김 초록개구리
249. 오늘의 날씨는	이현 글, 김홍모 그림 창비
250. 오이대왕	크리스티네 놀스틀링거 글, 유혜자 옮김 사계절
251. 오후 3시 베이커리	김이현 글, 이지선 그림 한길사
252. 완벽한 가족	로드리고 무뇨스 아비아 글, 오윤화 그림, 남진희 옮김 다림
253. 왕따	이윤학 글, 전종문 그림 문학과지성사
254. 왜?	니콜라이 포포프 그림 현암사
255. 왜 나를 미워해	요시모토 유키오 글, 김미혜 황시백 옮김 보리
256. 왜 세계의 절반은 굽주리는가?	장 지글러 글, 유영미 옮김 갈라파고스
257. 요한의 선택	한스-게오르크 노아크 글, 모명숙 옮김 풀빛
258. 욕심 많은 쥐	마누체흐르 케이아럼 글, 알리 마훼케리 그림, 김영연 옮김 큰나
259. 용산개 방실이	최동인 글, 정혜진 그림 책공장더불어
260. 용이 걸어오는 소리	알키 지 글, 이금희 그림, 한혜정 옮김 창비
261. 우리 가족 최고의 식사	신디위 마고나 글, 패디 보우마 그림, 이해인 옮김 샘터
262. 우리 가족입니다	이혜란 글 그림 보림
263. 우리 누나	오키 슈조 글, 카미야 신 그림, 김난주 옮김 웅진닷컴
264.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가 없다	김중미 글, 유동훈 그림 별천지
265. 우리 마을에 서커스가 왔어요	고바야시 유타카 글 그림, 길지연 옮김 미래M&B
266. 우리 마을에 전쟁이 났어요	파티마 사라페딘 글, 클로드 K. 뒤부아 그림, 여우별 옮김 맑은 가람
267. 우리 얘길 들려줄게	시벨라 월크스 엮음, 윤길순 옮김 디딤돌
268. 우리 인물이야기-길 위의 신부 문정현 등 18권	우리교육 편집부 엮음 우리교육
269. 우리 집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세일라 고든 글, 박윤희 그림, 흥영분 옮김 웅진주니어
270. 우리는 손으로 말해요.	프란츠 요제프 후아이니크 글, 베레나 밸하우스 그림, 김경연 옮김 주니어김영사
271. 우리들만의 규칙	신시아 로드 글, 최정인 그림, 김영선 옮김 주니어랜덤
272. 우리들의 스캔들	이현 글 창비
273.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캐롤린 캐슬 엮음, 존 버닝햄 외 그림, 이명희 옮김 마루별

274. 우트로의 희망 노래	최은영 글 푸른책들
275. 운하의 소녀	티에리 르냉 글, 조현실 옮김 비룡소
276. 울지마, 산타!	공선옥 글, 김정혜 그림 주니어랜덤
277. 울타리 너머 아프리카	바르트 무아르트 글, 안나 히그룬드 그림, 최선경 옮김 비룡소
278. 위대한 강	프레데릭 백 글 그림, 햇살과나무꾼 옮김 두레
279. 위풍당당 질리 흉킨스	캐서린 패터슨 글, 이다희 옮김 비룡소
280. 유진과 유진	이금이 글 푸른책들
281. 육촌형	이현주 글, 박철민 그림 보림
282. 유품 사냥꾼	김그네 글, 성미리 그림 청어람주니어
283. 이것은 사라질 생명의 목록이 아니다	박병상 글, 박홍렬 그림 알마
284. 이를 없는 너에게	벌리 도허티 글, 장영희 옮김 창비
285. 이안의 산책	로리 리어스 글, 카렌 리츠 그림, 이상희 옮김 큰북작은북
286. 이어달리기	권법철 외 글 길찾기
287. 이티 할아버지 채규철 이야기	이셨 글, 원유미 그림 우리교육
288. 인도의 딸	글로리아 웰런 글, 염혜숙 옮김 내인생의 책
289. 인종 이야기를 해볼까	줄리어스 레스터 글, 카렌 바버 그림, 조소정 옮김 사계절
290. 잃어버린 아이들	메리 윌리암스 글, 그레고리 크리스 그림, 노성철 옮김 사계절
291. 자유의 길	줄리어스 레스터 글, 로드 브라운 그림, 김중철 옮김 낫은산
292. 자이, 자유를 찾은 아이	풀 티에스 글, 크리스토프 멀랭 그림, 김태희 옮김 사계절
293.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	풀 플라이쉬만 글, 김희정 옮김 청어람미디어
294. 장거리 주자의 고독	앨런 실리토 글, 이은선 옮김 창비
295. 장벽	피터 시스 글 그림, 안인희 옮김 아이세움
296. 장수 만세	이현 글, 오승민 그림 우리교육
297. 재미네꼴	중국조선족설화, 흥성찬 그림 재미마주
298. 적	다비드 칼리 글, 세르주 블로크 그림, 안수연 옮김 문학동네
299. 전갈의 아이	낸시 파머 글, 백영미 옮김 비룡소
300. 전쟁	아나이스 보즐라드 글 그림, 최윤정 옮김 비룡소
301. 전쟁과 아우	이르멜라 벤디트 글, 안토니 보라틴스키 그림, 유혜자 옮김 은나팔
302. 전쟁놀이, 그 때 나는 열 한살 이었다, 뜬자국	현길언 글, 이우범 그림 계수나무
303. 전쟁은 왜 일어날까	질 폐로 글, 세르주 블로크 그림, 박동혁 옮김 다섯수레
304. 전쟁을 위한 기도	마크 트웨인 글, 존 그로스 그림, 박웅희 옮김 돌배개
305.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	제니퍼 암스트롱 글, 임옥희 옮김 비룡소
306. 절뚝이의 염소	나가사키 겐노스케 글, 김호민 그림, 양미화 옮김 문학동네어린이
307. 제암리를 아십니까?	장경선 글, 류충렬 그림 푸른책들
308. 조지프의 마당	찰스 키핑 글 그림, 서애경 옮김 사계절
309. 종이 봉지 공주	로버트 먼치 글, 마이클 마르첸코 그림, 김태희 옮김 비룡소
310. 종이학	엘리너 코어 글, 애드 영 그림, 강무홍 옮김 바다어린이
311. 주먹곰을 지켜라	김남중 글, 김중석 그림 우리교육
312.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데이비드 스미스 글, 셀라 암스트롱 그림, 노경실 옮김 푸른숲
313. 지구인 화성인 우주인	움베르트 에코 글, 에우제니오 카르미 그림, 김운찬 옮김 웅진주니어
314. 지긋지긋한 이사	마리안네 일메엡니터, 라파엘라 라착 그림, 김세은 옮김 리谮
315. 지뢰 대신에 꽃을 주세요 1,2	야나세 후사코 글, 요 쇼메이 그림, 송승희, 선곡유화 옮김 청어람미디어
316. 지루호오 이야기	오오노 세조코 그림 글 커뮤니티
317. 지하정원	조선경 그림 글 보림
318. 집도 없이 태양도 없이	모하마드 하디 모하마디 글, 하산 어메칸 그림, 김영연 옮김 다림
319. 집으로	이브 번팅 글, 데이비드 디아즈 그림, 김미선 옮김 열린어린이
320. 짜장면 불어요!	이현 글, 윤정주 그림 창비

321. 짹퉁 인디언의 생짜 일기	셔먼 알렉시 글, 엘런 포니 그림, 김선희 옮김 다른
322. 광뚱이 시리즈(1~6)	신영식 그림, 오진희 글 파랑새 어린이
323. 쫀드기 쌤 핀드기 쌤	최종득 시, 지연준 그림 문학동네
324. 찌푸린 자구의 얼굴 지구온난화의 비밀	허창희 글, 박재현 그림 풀빛
325. 차일드 플	이병승 글 푸른책들
326. 천개의 친란한 태양	할레드 호세이니 글, 왕은철 옮김
327. 천사들의 행진	강무홍 글, 최혜영 그림 양철북
328. 청구회 추억	신영복 글, 김세현 그림, 조병은 영역 돌베개
329. 청년 노동자 전태일	위기철 글, 안미영 그림 사계절
330. 초딩 자전거 길을 만든다	박남정 글, 이형진 그림 소나무
331. 초록 눈 코끼리	강정연 글, 백대승 그림 푸른숲주니어
332. 초콜릿 전쟁	로버트 코마이어 글, 안인희 옮김 비룡소
333. 초콜릿 전쟁	오이시 마코토 글, 기타다 다큐시 그림, 햇살과나무꾼 옮김 중앙출판사
334. 치킨 마스크	우쓰기 미호 글 그림, 정지현 옮김 책읽는곰
335. 친구가 되고 싶어	하이케 엘러만 글 그림, 박민주 옮김 국민서관
336. 친절한 친구들	무라야마 토모요시 글, 호안 이춘 그림, 예상열 옮김 한림출판사
337. 카평의 개구쟁이 1, 2	리트 글 그림, 박인하, 홍윤표 옮김 꿈틀
338. 커피우유와 소보로빵	카를린 필립스 글, 전은경 옮김, 하구 그림 푸른숲
339. 퀼트 할머니의 선물	제프 브럼보 글, 개일 드 마肯 그림, 양혜원 옮김 흥성사
340. 큰 발 중국 아가씨	렌세이 나미오카 글, 최인자 옮김 달리
341. 탄광마을 아이들	임길택 글, 정문주 그림 실천문학사
342. 태안 신두리 모래언덕에 핀 꽃	김천일 글 보림
343. 태일이 (1~5)	최호철 그림, 박태옥 글, 고래가그랬어 편집부 돌베개
344. 토키 뺑튀기	정해왕 글, 한선현 그림 길벗어린이
345. 토키 청설모 까치	장주식 글, 원혜영 그림 국민서관
346. 토키의 눈	강정규 글 푸른책들
347.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유다정 글, 박재현 그림 미래M&B
348. 특별한손님	안나레나 맥아피 글, 앤서니 브라운 그림, 허은미 옮김 베들북
349. 파란 티셔츠의 여행	비르기트 프라더 글, 비르기트 안토니 그림, 염혜숙 옮김 담푸스
350. 페리세폴리스 1, 2	마르잔 사트라피 글 그림 새만화책
351. 프란시스코의 나비	프란시스코 지메네즈 글, 노현주 그림, 하정임 옮김 다른
352. 평화는요	토드 파 글 그림 예림당
353. 평화랑 뿐뿐해요	한국-베트남 어린이 문예대회 수상작 모음 한겨레 아이들
354. 평화를 그리는 티베트 친구들	티베트난민어린이들 글 그림, 가브리엘 랩킨 엮음, 배블링북스 옮김 초록개구리
355. 평화를 배우는 교실(1~5)	이와카와 나오카 외 글, 모리 마사유키 외 그림, 김규태 외 옮김 초록개구리
356. 폭죽소리	리혜선 글, 이담, 김근희 그림 길벗어린이
357. 표범 소년 오우이아 이야기	프란체스코 다다모 글, 조연상 그림, 김효진 옮김 시소
358. 플루토(1~8)	우라사와 나오카 글 그림 서울문화사
359. 피기스의 전쟁	로버트 웨스틀 글, 지민희 그림, 김중철 옮김 웅진주니어
360. 하느님의 눈물	권정생 글, 신혜원그림 산하
361. 하늘은 이어져 있다	일본 이동 문학자 협회 글, 문연주 옮김 낮은산
362. 하늘을 날다	김남중 글 오승민 외 그림 낮은산
363. 하늘을 달리는 아이	제리 스피렐리 글, 김율희 옮김 다른
364. 한스와 아이들	아드리아나 페드론 폴비렌티 글 그림, 김홍래 옮김 서광사
365. 한 아이의 정원	마이클 포맨 글, 김중철 옮김 웅진주니어
366. 할머니와 친구가 될 순 없나요?	프랑크 비주 글, 이해진 그림, 윤정임 옮김 책그릇
367. 할아버지의 눈으로	패트리샤 매클라클랜 글, 데버러 코건 레이 글, 신형건 옮김 보물창고

368. 할아버지의 뒤후	이준호 글, 백남원 그림 사계절
369. 해를 삼킨 아이들	김기정 글, 김환영 그림 창비
370. 행복한 이티 할아버지	박선욱 글, 장호 그림 아이세움
371. 헨리의 자유 상자	엘린 레빈 글, 카디르 넬슨 그림, 김향이 옮김 뜨인돌어린이
372. 훌리스 우즈의 그림들	패트리샤 레일리 기프 글, 원지인 옮김 네버엔딩스토리
373. 흥이 이야기	이승민 글, 박건웅 그림 새만화책
374. 환절기	박정애 글 우리교육
375. 희망을 여행하라	임영신, 이해영 글 소나무
376. 희망을 키우는 착한 소비	프란스 판 데어 호프, 니코 로전 글, 김영중 옮김 서해문집
377. 흰 지팡이 여행	에이다 바셋 리치필드 글, 김용연 그림, 이승숙 옮김 사계절
378. 히나코와 걷는 길	오키다 나와코 글, 노석미 그림, 고향옥 옮김 보림
379. 히로시마	나스 마사모토 글, 나시무라 시게오 그림 사계절
380. 히어와서의 노래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 시, 수잔 제퍼스 그림, 부수영 옮김 보림
381. 힘들어도 괜찮아	오키 슈조 글, 다치바나 나오노스케 그림, 고향옥 옮김 웅진주니어
382.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건 이제 끝	브리지지 라베, 미셸 뷔엑 글, 자크 아잠 그림, 장석훈 옮김 소금창고
383. 힘들, 보여주마	박관희 글, 변영미 그림 창비

2012년

어린이 (110종)

1. 6학년 1반	구덕천 · 허은순 글, 곽정우 그림 현암사
2. 가시내	김장성 글, 이수진 그림 사계절
3. 갈 테야 목사님	조은수 글 그림 웅진주니어
4.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글 그림 시공주니어
5. 거짓말이 가득	오키슈조 글, 노석미 그림, 고향옥 옮김 창비
6. 검은 마을 하얀 마을	류보라 글 그림, 최현경 옮김 책읽는곰
7. 고양이 학교	김진경 글, 김재홍 그림 문학동네어린이
8. 곰의 아이들	류화선 글, 이윤희 그림 문학동네어린이
9. 곰이와 오푸들이 아저씨	권정생 글, 이담 그림 보리
10. 기분	다니카와 순타로 글, 초 신타 그림, 엄혜숙 옮김 한림
11. 기찻길 옆동네 1,2	김남중 글, 류충렬 그림 창비
12. 꽃할머니	권윤덕 글 그림 사계절
13. 나는 곰입니다	장 프랑수아 뒤풋 글 그림, 이주희 옮김 봄봄
14. 나는 아이로서 누릴 권리가 있어요	알랭 세레 글, 오렐리아 프롱티 그림, 이경혜 옮김 고래이야기
15. 나는 평화를 꿈꿔요	유니세프 글, 김영무 옮김 비룡소
16. 낫팡이 간다	김송이 글, 흥영우 그림 보리
17. 내 이름은	이순덕 · 공진하 글, 최정인 그림 낫은산
18. 내 텏이 아니야	레이프 크리스티안손 글, 딕 스텐베리 그림, 김상열 옮김 고래이야기
19.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하세가와 요시후미 글 그림, 정지현 역 고래이야기
20. 너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	マイ크 캐시디 글, 이성우 역 다른
21. 넌 정말 멋져	미야니시 타츠야 글 그림, 허경실 옮김 달리
22. 누구라도 친구	신자와 도시히코 글, 아베 히로시 그림, 유문조 옮김 문학동네어린이
23. 니 꿈은 뭐이가?	박은정 글, 김진화 그림 웅진주니어
24. 니코 오빠의 비밀	알기 지 저, 최선경 옮김 창비
25. 달 샤べ트	백희나 글 그림 스토리보울

26. 달라도 친구	허은미 글, 정현지 그림 웅진주니어
27. 대추리 아이들	김정희 글, 홍정선 그림 사계절
28. 대포 속에 들어간 오리	조이 키울리 글, 로빈 벨튼 그림, 흥연미 옮김 베틀북
29. 더 커다란 대포를	후타미 마사나오 글 그림, 김현주 옮김 한림
30. 돌고래 파치노	정도상 글, 오윤화 그림 문학동네어린이
31. 둑근 해가 떴습니다	장경혜 글 문학동네어린이
32. 둉지 상자	김황 글, 이승원 그림 한솔수복
33. 딸꾹질	김고은 글 그림 아지북스
34. 똥줌오줌	김영주 글, 고경숙 그림 재미마주
35. 똑딱똑딱 인권짓기 1,2	인권교육센터 들 글, 윤정주 그림 책읽는곰
36. 로봇의 별 1~3	이현 글, 오승민 그림 푸른숲주니어
37.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하이타니 겐치로 글, 초 신타 그림, 햇살과나무꾼 옮김 양철북
38. 리언이야기	리언 월터 틸리-수잔 엘 로스 글, 배경내 옮김 바람의아이들
39. 마이 볼	유준재 글 그림 문학동네어린이
40. 맨홀장군 한새 1, 2	김우경 글, 오승민 그림 문학과지성사
41. 명애와 다래	이형진 글 그림 느느보
42. 무기 팔지 마세요	위기철 글, 이희재 그림 청년사
43. 물과 숲과 공기	몰리 뱅 글 그림, 최순희 옮김 마루벌
44. 바람이 불 때에	레이먼드 브릭스 글 그림, 김경미 옮김 시공주니어
45. 바보 사냥꾼과 멧진 사냥개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 글 그림, 서애경 옮김 현북스
46. 반짝이는 물을 보았니?	조은수 글 그림 칭비
47. 밥데기 죽데기	권정생 글, 박지훈 그림 비오로딸
48. 봉주르 뚜르	한윤섭 글, 김진화 그림 문학동네어린이
49.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박관희 김중미 등 글, 윤정주 그림 칭비
50. 비무장 자대에 봄이 오면	이억배 글 사계절
51. 빨리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마스다 미리 글, 히라사와 잇페이 그림, 김난주 옮김 뜨인돌어린이
52. 뾰뽀가 좋아	카렌 콜럼 글, 세레나 게디스 그림, 고수미 옮김 을파소
53. 사라 버스를 탄다	윌리엄 밀러 글, 존 워드 그림, 박찬석 옮김 사계절
54. 새끼 표범	강무홍 글, 오승민 그림 웅진주니어
55. 선생님 내 부하해	하이타니 겐지로 글, 햇살과나무꾼 옮김 양철북
56.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이현정 글, 박재현 그림 맹&앵
57.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멤 폭스 글, 레슬리 스타웁 그림, 김기택 옮김 비룡소
58. 수달이 오던 날	김용안 글, 한병호 그림 시공주니어
59. 수요일의 괴물	다니엘르 시마르 글, 이정주 옮김 개암나무
60.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안순혜 글, 박혜선 그림 파란자전거
61.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	필립 C. 스테드 글, 에린 E. 스테드 그림, 유병수 옮김 열린책들
62. 아빠가 우주를 보여준 날	율프 스타르크 글, 에바 에릭손 그림, 사과나무 옮김 크레용하우스
63.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상교 글, 한자영 그림 봄봄
64. 안 돼!	데이비드 맥페일 글 그림 시공주니어
65. 양파의 왕따 일기	문선아 글, 박철민 그림 주니어 파랑새
66. 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츠 글, 와다 마코토 그림, 자지현 옮김 보림
67. 에리카 이야기	루스 반더 지 글, 로베르토 인노첸티 그림, 차미례 옮김 마루벌
68. 열두 살의 전설	고토 류지 글, 박종진 옮김 우리교육
69. 오늘도 화났어	나카가와 히로타카 글, 하세가와?요시후미 그림, 유문조 옮김 내인생의책
70. 왜?	니콜라이 포포프 글 현암사
71.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가 없다	김중미 글, 유동훈 그림 별천지
72. 우리 집엔 작은 돌고래가 살아요	히메노 치토세 글 그림 지혜정원

73. 우리누나	오카 슈조 글, 카미야 신 그림, 김난주 옮김 웅진주니어
74. 우리는 친구	다니카와 순타로 글, 와다 마코토 그림, 김숙 옮김 북뱅크
75. 우리는 핀볼이 아니다	베치 바이어스 글, 김영욱 옮김 사계절
76. 우리는 한가족이야	핌 판 헤스트 글, 난케 탈스마 그림, 정낙선 옮김 고인돌
77.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마리 프랑스 보트 글, 파스칼 르메트르 그림, 흥은주 옮김 문학동네어린이
78. 이상해	나카야마 치나쓰 글, 야마시타 유조 그림, 고향옥 옮김 고래이야기
79. 인디고의 별	힐러리 매케인 글, 전경화 옮김 책과콩나무
80. 자존심	김남중 글, 이형진 그림 창비
81. 재활용 아저씨 고마워요	알리 미트구쉬 글 그림, 김경연 옮김 풀빛
82. 전쟁과 소년	윤정모 글, 김종도 그림 푸른나무
83.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듣지 마세요	변선진 글 그림 바람의아이들
84. 쥐와 개	김중철 글, 김고은 그림 웅진주니어
85. 지구 엄마의 노래	윤여림 글, 윤지희 그림 문학동네어린이
86.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데이비드 스미스 글, 셀라 암스트롱 그림, 노경실 옮김 푸른숲주니어
87. 지구가 더워졌어요	상드린 뒤마 로이 글, 엠마뉴엘 우세 그림, 김주경 옮김 을파소
88. 지구를 다 먹어버린 날	알랭 세르 글, 실비아 보나리 그림, 박희원 옮김 뜨인돌어린이
89. 지구를 위한 한 시간	박주연 글, 조미자 그림 한솔수북
90.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어봐!	신순재 글, 장경혜 그림 창비
91. 짜장 짬뽕 탕수육	김영주 글, 고경숙 그림 재미마주
92. 짹정 바꿔주세요	다케다 미호 글 그림, 고향옥 옮김 웅진주니어
93. 찬다 삼촌	윤재인 글, 오승민 그림 느림보
94. 참 좋다 통일 세상	임수경 글, 박재동 그림 황소걸음
95. 천사들의 행진	강무홍 글, 최혜영 그림 양철북
96. 최기봉을 찾아라	김선정 글, 이영림 그림 푸른책들
97. 최열 아저씨의 푸른 지구 만들기 세트	최열 글, 김성은 그림 청년사
98. 친구야, 난 네가 참 좋아	밀야 프라그만 글 그림, 이태영 옮김 나무생각
99. 침팬지를 사랑한 동물학자 제인 구달	서경석 글, 김형배 그림 사회평론
100. 캠퍼инг의 개구쟁이 1,2	라트 글, 박인하 흥운표 옮김 꿈틀
101. 크라신스키 광장의 고양이들	캐런 헤스 글, 웬디 앳슨 그림, 유영종 옮김 별숲
102.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유다정 글, 박재현 그림 미래아이
103. 파란 티셔츠의 여행	비르기트 프라더 글, 비르기트 안토니 그림, 엄혜숙 옮김 담푸스
104. 평화는 어디에서 오나요?	구드룬 파우제방 글, 김중철 옮김 웅진주니어
105. 평화는 힘이 세다	로라 자페 글, 장석훈 옮김 푸른숲주니어
106. 평화란 어떤 걸까?	하마다 게이꼬 글 그림, 박종진 옮김 사계절
107. 피터히스토리아 1,2	교육공동체 나다 글, 송동근 그림 북인더갭
108. 하느님 물건을 파는 침새	이오덕 시, 김용철 그림 고인돌
109. 함께 걷는 길	김서정 글, 한성옥 그림 웅진주니어
110. 황금 사과	송희진 글, 이경혜 옮김 뜨인돌어린이

청소년 (40종)

1. 20년간의 수요일	윤미향 글 웅진주니어
2. 26년	강풀 글 그림 재미주의
3. 4.19혁명	윤석연 글, 소복이 그림 한겨레틴틴
4. 굿모닝 베마	기 들릴 글, 소민영 옮김 서해문집
5. 그래도 죽지 마	시본 도우드 글, 서른 옮김 생각과느낌

6.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우조영 글 걷는나무
7. 난 그것만 생각해	카림 르수니 드미뉴 글, 곽이경 해제, 조승연 그림, 김혜영 옮김 검동소
8.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허남혁 글, 김종엽 그림 책세상
9. 내가 살던 용산	유승하 외 보리
10. 너는 나다	허종강 외 철수와영희
11. 도와줘 제발	엘리자벳 줄러 글, 임정희 옮김 주니어김영사
12. 방관자	제임스 프렐러 글, 김상우 옮김 미래인
13.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 창비
14. 뺑과 장미	캐서린 패터슨 글, 우달임 옮김 문학동네
15. 빼앗긴 내일	플라타 필리포빅 글, 멀라니 철린저 역음, 정미영 옮김 한겨레아이들
16. 생태요괴전	우석훈 글 개마고원
17. 소금꽃나무	김진숙 글 후마니타스
18. 손톱이 자라날 때	방미진 글 문학동네
19. 신과함께	주호민 글 그림 애니북스
20.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박영희 글 삶이보이는창
21. 열일곱 살의 털	김해원 글 사계절
22. 오래된 미래 : 라디크로부터 배우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글, 양희승 옮김 중앙북스
23.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글, 유영미 옮김 갈라파고스
24. 우리들의 7일 전쟁	소다 오사무 글, 고향옥 옮김 양철북
25.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글 창비
26. 유진과 유진	이금이 글 푸른책들
27.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학생생활연구회 양철북
28. 인권, 교문을 넘다	인권교육센터 들 한겨레에듀
29. 주먹을 꼭 써야할까?	이남석 글 사계절
30. 지금은 없는 이야기	최규석 글 그림 사계절
31. 지독한 장난	이경화 글 대교
32. 초가집이 있던 마을	권정생 글, 흥성당 그림 분도출판사
33. 초콜릿 전쟁	로버트 코마이어 글, 안인희 옮김 비룡소
34.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전쟁없는세상 외 철수와영희
35. 태일이 1 ~ 5	박태옥 글, 최호철 그림 돌베개
36.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도리힐레스타드 버틀러 글, 이도영 옮김 미래인
37. 페르세폴리스 1 ~ 2	마르잔 사트라피 글 새만화책
38. 하늘은 이어져 있다	일본아동문학자협회 글, 문연주 옮김 낮은산
39. 핵폭발 뒤 최후의 아이	구드룬 파우제방 글, 최혜란 그림, 함미라 옮김 보물창고
40.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백상	헬렌 니어링 글, 공경희 옮김 디자인하우스

2012 어린이 청소년 평화책 순회 전시회

참여 도서관 · 단체 연락처

제주지역

강정마을평화북카페

미정

대정골지역아동센터

699-931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08-1
064-792-3690

귀덕초등학교 '오순도순글숲' 도서관

690-922 |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4-5 귀덕초
등학교
064-796-3202

동녘도서관

695-973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064-782-5304

달리도서관

690-022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17번지 2층
064-702-0236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690-809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00-3번지 2층
064-721-8219

부산지역

사)부산어린이어깨동무

600-012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2가 12-3 3층
051-819-7942

민주공원

600-110 |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산10-16
051-790-7400

글마루작은도서관

600-110 |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95-13
051-469-8451

사상어린이도서관

617-8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 24-65번지
051-310-7971

남문초등학교

611-803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23
051-507-0521

우리동네도서관

611-81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478-30 금덕상가
빌라 3층
051-900-9884

괴정초등학교

604-8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315
051-293-2051

풀잎작은도서관

606-04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길 146 영선2동 주민
자치센터 3층
051-419-5541

성지달팽이작은도서관

614-81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275-26번지
051-898-5000

화명도서관

616-852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 2281
051-309-6481

신호초등학교

618-290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54
051-974-6800

책방골목문화관

600-803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1가 130-3번지
051-743-7650



인천지역

진달래어린이도서관

403-821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 172-7
032-261-0313

콩세알어린이도서관

405-865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952-1 202호
032-464-2348

골목도서관

401-040 | 인천시 동구 송현동 88-19 솔마루 사랑방 2층
070-7770-2392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403-839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3동 317-119 부평대
건신협 2층
032-521-2040

늘푸른어린이도서관

406-832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45-78 펠릭스빌
딩 3층
032-526-5204

풀앗이어린이도서관

403-837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2동 255-15번지 2층
032-504-4020

영종도서관

400-833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85 운서동2709-1
1 | 영종도서관
032-745-6000

경기지역

경기도미술관

425-866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1
031-481-7044

재미있는느티나무도서관

472-938 |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2번지 세신훠미리빌
딩 604호
031-972-5444

군포시중앙도서관

435-854 | 군포시 수리산로 79산본동 | 군포시 중앙도서관
031-390-8884

책이랑도서관

462-812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901
031-732-7004

어린이청소년도서관책놀이터

411-81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3-10 2층)
031-967-8777

서울지역

꿈나무책놀이방

122-0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구
응암동 42-5)
02-351-2012

오남중학교도서관

152-1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산 39-40 오남중학교
02-2687-4235

마포구립서강도서관

121-88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45-15
02-3141-7503



강원지역

성림초등학교도서관

200-936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자석로 47 성림초등학교
033-263-1841

정선꿈꾸는도서관

233-807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1리 615-4
033-562-0691

오안초등학교도서관

250-854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오안로 12번지
033-434-3889

충청지역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관장

301-080 | 대전시 중구 종촌동 62-2 종촌다목적복지회
관 1층
042-226-3534

흥덕문화의집

362-82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18 1층 흥덕문화
의집
043-274-7500

경상지역

대구동성초등학교늘벗도서관

706-832 |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282번지
053-761-3174

포항시립포은도서관

791-130 |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054-270-5681

안골포초등학교반딧불도서관

645-530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30번지
070-8863-7097



삼성이 가린 백혈병의 진실

한 아버지가 딸을 앓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의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딸의 병은 백혈병입니다.

그리고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을 앓았습니다.

갓 태어난 둘째아이의 출생신고를 힘겹게 끝내고

골수이식 수술을 기다리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의 병은 백혈병입니다.

그리고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죽어간 이들이 삼성 공장에서만

벌써 55명에 이릅니다.

그래도 삼성은 이들의 병이

단순한 개인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이들의 죽음에 답할 차례입니다.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

김수박 만화 | 132쪽 | 12,000원

먼지 없는 방 삼성반도체 공장의 비밀

김성희 만화 | 152쪽 | 12,000원



보리 전화 031-955-3535 | 누리집 www.boribook.com | 트위터 @boribook



peacemuseum
평화박물관

110-170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99-1
02-735-5811~2
www.peacemuseum.or.kr

